

베이비부머 세대 문화 매거진

50·60세대 이모작 인생의 새 빛 에너지 메신저

POST



Y · O · L · D

October. 2025

Award winning Handcrafted Grape Spirits

멜버른진컴퍼니는 호주 로컬 증류주 시장의 포문을 연 **호주의 첫 독립증류소**입니다.

호주의 유명 와인메이커 Andrew Marks에 의해 설립된 곳으로,

와인메이커가 만든 독립증류소답게, 진의 베이스가 되는 화이트 스피리츠로 '**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GC 싱글샷

도수_47.4% 용량_700ml



깊고 강한 풍미와 오랜 지속성
2025 SFWSC 수상에 빛나는
프리셔스 시핑 진



MGC멜버른드라이진

도수_42% 용량_700ml



극강의 부드러움과 섬세한 우아함
11가지의 보태니컬을 살린 호주의
첫 로컬 부티크 진

수상 경력



MGC네그로니

도수_26% 용량_700ml

분위기와 맛 모두 사로잡을
톱클래스 Ready to Drink Cocktail
트렌드 세터를 위한 고급스런 캠핑&파티주



MGC 피노 드 캠브룩

도수_19.5% 용량_700ml

와인 애호가라면 꼭 경험해 봐야 할
세상에 없던 미스텔 Mistelle
2025 vintage 국내 10월 입고 예정

<MGC 싱글샷>

Double Gold SFWSC 2025

Gin Master Global Gin Masters 2022

Gold SFWSC 2022

Gin Master Global Gin Masters 2018

Double Gold SFWSC 2018

Gold Global Gin Masters - Asia 2018

<MGC멜버른드라이진>

Gold SFWSC 2025

Gold Global Gin Masters - London 2018

Gold Global Gin Masters - Asia 2018

Gold SFWSC 2017

Gold NYISC 2016



멜버른진컴퍼니

국내 독점 수입사: 파이브네이처스 오엔마켓 | mgckorea.com

당티 한 병으로 챙기는

1석3조

1. 땀 흘린 뒤 수분충전
2. 높아진 혈당 강하
3.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

V23
바나듐함유



큐알코드로
자세히 알아보기



맷돌 아시죠?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라는 것도?

요즘에야 흔히 볼 수 없지만, 그 옛날, 아니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종종 볼 수 있던 풍경이 여름엔 맷돌에 콩 같아 콩국수 해 먹는 일이고, 겨울이면 녹두에 불린 쌀 넣어 함께 갈아 빈대떡 지져 먹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콩 같고 녹두 같아야 할 맷돌에 손잡이가 없다니, 세상에나…….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writer _김다나 작가 / photo _ W Media DB



살다보니 어처구니없는 일도 어처구니 있는 일도 주변에 널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많은 애길 미주알고주알 캐볼 수는 없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추석 얘기나 좀 해볼게요. 물론 이제부터 늘어놓을 얘기가 죄다 촌스럽기 그지없고 푼수 떼기인 제 생각이지만요.

추석, 설, 이렇게 두 번의 명절은 한 해도 빠짐없이 찾아오는데, 이때만 되면 모든 매스컴들이 일제히 아줌마 편을 들고 나섭니다. ‘앉아서 얻어먹는 남편은 편하십니까?’부터 시작해서, ‘명절 증후군이 며느리뿐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있다느니, 어쨌다느니’, ‘명절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등등 해 가며 그저 평소보다 조금, 아니 아니 무척 많이 일할 거란 생각에 ‘아이고, 내 팔자야.’하면서도 의연하게 전투태세에 임할 준비를 하는 보통 아줌마들을 심정 상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일이 좋아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그걸로 남편에게 강짜도 부리고, 구시렁댈 거리도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대접도 받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생색도 안 나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고따위 동정표나 얻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암튼 각설하고 설라무니, 요 명절이라는 게 말입니다. 뭐든 그렇지만,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일년에 두 번, 까짓 거 으쌰으쌰! 해가면서 고무줄 바지 챙겨 입고 두 팔 걷어붙이고 일하고 나면, 한 며칠 팔 다리 머리 어깨가 제 멋대로 놀기야 하겠지만, 그걸 갖고 죽기야 하겠습니까? 무슨 때만 되면 고양이 주검 앞에서 훌리는 쥐 눈물만큼 생색내지 말고 평소에 진심을 가지고, 그리고 꾸준히 신경 좀 써달란 얘깁니다.

살짝 지난 얘긴데요, 모 일간지에 실린 글을 읽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나니, 어처구니없고 뒷맛이 씁쓸합디다. 왜냐고요? 결혼한 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친정에 가서 올케를 도와준다는 사람은 80%나 되는데, 시댁에서 시누이들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답니다. 입장 바꿔놓고 보면 누구나 똑같은 처진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시누이도 되고 올케도 되는 우리 아줌마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친정 가서 올케 밥상 차릴 때 수저 몇 벌 놓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와주는 시누님이 되시는 거고, 거꾸로 시댁에선 적어도 설거지는 해줘야 그나마 자기를 도와주는 시누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러니 여자들, 수염이 안 나지.’하고 혀 차는 분, 거기 한 분, 저기 두 분, 어이쿠, 저쪽엔 무리지어 계시네?

조만간 아줌마가 될 예비 아줌마들, 중견 아줌마들, 황혼 아줌마들, 통틀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천하무적 아줌마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섞여 휘둘리지 말고 통 크게 삽시다.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나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브이, 짱가, 그리고 슈퍼맨 등등을 합친 것보다 더 지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짹짜하게 살 순 없잖아요?

하나만 더요. 남편은 나하고 있을 때만 내 남편 합시다. 나머진 말 그대로 ‘남의 편’으로 살게 하고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아니다? 바바리코트는 남자의 전유물이다! 아니다?.

가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갈바람에 떨어지는 노란 은행잎들 속에

꿈과 같은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반에는

가을을 떠나보내는 진혼곡이 울리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가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와 같은 삶의 이야기

가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용혜원의 가을이야기 중에서---)

하나, 가을 풍경

바바리코트란 이름으로 뭉뚱그려진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바람에 머플러 날리며 낙엽 사이를 뚜벅뚜벅 걷고 있는 남자의 모습은 미제 담배 광고에 나오는 카우보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 멋진 그림이다. 여기에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면……' 하는 지나간 그리고 약간은 고리타분하게까지 느껴지는 가을 노래가 흘러나온다면 금상첨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어? 이게 아닌가?

두울, 양기와 음기 혹은 남자와 여자

사람들은 왜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 부를까? 음양오행원리로 보면 남자는 양기가 강하고 여자는 음기가 강하다는데 그래서 붙여진 생각인가? 하긴 일리 있는 이야기다. 한 여름 풍성한 양기를 지녔던 남성이 음기가 왕성해지는 겨울이 다가오니 움츠러들며 음기 강한 여자에 끌릴 만도 하다. 반대로 봄은 점점 양기가 강해지는 여름을 맞는 단계이니 여자들이 우울해지며 양기에 이끌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해서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타는 게 아닌가 싶다.



세엣, 계절을 탄다?!

사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란 말이 요즈음엔 그다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는다. 주변을 둘러보라! 남녀 가릴 것 없이 봄이면 봄을 타고, 여름이면 여름을, 가을엔 또 가을을, 그리고 겨울까지도 심각하게 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일 테니……. 모두 그렇게 제각기 계절을, 시간을 타고 있는 것이다.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화이트데이엔 사탕을, 빼빼로데이엔 빼빼로를 주고 받아야하는 게 누군가의 상술로 생겨났다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란 얘기도 시간을 두고 그렇게 차곡차곡 뿌리 내렸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이제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는 얘기는 물 건너 간 얘기라고? 그래도 어쩌리? 여전히 가을엔 남자의 이미지가 그려지니…….

네엣, 겨울맞이

가을은 이미 시작되었고, 낮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 남자들이여! 뜨거웠던 지난 여름, 자연과 인체에 차고 넘치는 양기를 잘 모아 두셨는가? 미처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열심히 해바라기든 별바라기든 하여 음기 넘치는 겨울, 기침 감기에서 무사하시길! 비단 이 얘기가 남자들만의 경우는 아닐 터!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 여름을 잘 견뎌내야 찬바람 부는 겨울이 그나마 덜 고생스러운 건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말이지.

그리고 꼬리말

겨울 끝자락에 있는 밸런타인데이가 깊은 가을에 있다면 보다 많은 여자들의 겨울이 포근하지 않을까?

전유성 선생의 독과외

- 故 전유성 선생을 기리며

조문래 용인일보 대표



지난 30여 년 동안 수집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희귀 LP 3천여장을 수집했고, 현존하는 뮤지션들에게 직접 사인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연주하던 기타에도 사인을 받는 일에 몰두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포크의 선구자 이정선 선생님께서 천둥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

“그 많은 걸 수집해놓으면, 누가 보러 올 건데?”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실제로 전국의 문학관, 사설 미술관, 박물관은 적자에 허덕이며 운영난을 겪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나는 조심스레 여쭈었다.

“선생님,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도 몰라. 그거 가르쳐줄 딱 한 사람이 있지. 전유성 선생을 찾아가 물어봐.”

다음 날, 무작정 전유성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K-포크뮤직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문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웃으며 “독과외는 수업료가 비싼데”라고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하고 지리산 인월 제비카페로 찾 아뵈었다.

마침 오전 11시쯤 도착해 커피 한 잔을 하고 점심을 대접하고자 하니, 선생님께서는 함양에 단골집이 있다 하시며, 15km 떨어진 함양 시내의 ‘장수 할머니 주전자 국수집’으로 이끌었다. 단돈 6천 원짜리 주전자 국수를 시켜놓고, 산삼에게 음악을 들려주던 행사, 청도 철가방극장 뒷이야기 등 진담과 농담을 섞어 풀어놓으셨다. 이 국숫집은 전유성 선생님이 방송에서 직접 소개하고 출연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 맛집이기도 하다.

식사 도중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공연장을 지어야 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공연장이 있어야 하고, 주차장 운영도 묘미가 있어야 해. 3시간 이내는 요금을 받고, 3시간 이상은 무료로 해면 돼. 그러면 사람들은 주차요금 아까워서라도 오래 머물 수밖에 없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공연장을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야 할까요?”

“17억이면 충분해. 예산이 부족하면 7~8억 정도로도 가능해. 100석에서 150석 규모의 공연장은 충분히 지을 수 있어.”

이어 선생님께서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다.

“을가을 나랑 같이 프랑스와 일본을 가자. 직접 보면 이해가 빠를 거야.”

“그럼 일본부터 가보시지요.”

“좋아, 10월 말쯤으로 하지.”

그렇게 일본 공연장 견학을 약속했고, 열흘에 한 번씩 찾아뵙고 독과외처럼 경험담을 듣기로 했다.

하루는 전유성 선생님과 함께 함양 시내의 독립서점 ‘오후공책’을 찾았다. 독서 광이신 선생님은 항상 읽을 책을 주문하며, 동네 책방을 응원한다고 하셨다. 감명 깊은 책이나 신간은 여러 권씩 주문해 학교에 기부하시기도 했다.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할인받아 책을 사잖아. 그래서 동네 서점들이 문을 닫는 거야. 나는 책방을 살리고 싶어.”

선생님은 ‘오후공책’에서 강연도 열고, 서울에서 찾아온 지인들을 데리고 일부러 책방을 찾곤 하셨다. 그날도 선생님이 고르신 책값을 대신 계산해드리며, 나도 책 몇 권을 더 보탰다.



또 하루는 지리산 인월에 다녀오시던 길에 전화를 주셨다.

“이승우 작가의『고요한 읽기』를 차에 두고 내렸네.”



그러시면서 이승우 작가의 악력과 수상 이력을 설명해 주시며,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훌륭한 작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덕분에 지금도 내 책상 위에는『고요한 읽기』가 놓여 있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실상사 앞 ‘맛있는 부엌’ 장독대에는 선생님의 된장독이 놓여 있다. 항아리에는 “전유성 2025년 5월 27일”이라고 정겹게 적혀 있었다.

“내년 봄에 오면 된장 좀 줄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지리산 요리학교 인 ‘맛있는 부엌’에서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간장은 아직도 개봉하지 못한 채, 불로초처럼 귀히 모시고 있다.

인월에서 함양으로 오가는 지안재와 오도재 고갯마루, 그리고 실상사 넓은 땅에는 늘 선생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선생님께서 지리산의 별이 되셨다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다만 현정의 마음을 담아 <지리산별>이라는 노랫말을 바치며, 그동안 독과외로 가르침을 주신 수업료 대신 전하고자 한다.

별처럼 살다가, 별이 되어 떠나신 선생님.
오도재 밤하늘을 밝히는 영원한 별로 빛나시길.



지리산의 별

1절

하늘의 별빛보다 빛나던 바보여
세상에 웃음만 주던 천재 성자여
당신은 단 한 번도 웃지 못하며
세상을 웃기던 그 사람, 그 사람

(후렴)

지리산 오도재 별이 된그대여
영원히 영원히 빛나고 있네
인사동 종소리 메아리 치면
그대의 목소리 다시 들려와~

2절

눈물도 웃음으로 만들던 그 사람
청도의 철가방은 떠나갔어도
인월의 앞마당 울리던 그노래
별이 되어 떠나버린 그 사람

(후렴 [반복])

지리산 오도재 별이 된그대여
영원히 영원히 빛나고 있네
인월의 밤하늘 비추는별빛 되어
당신의 웃음이 다시 피어나~

제4회 무지카사크라페스티벌

2025.10.31.(금) / 11.1.(토) / 11.8.(토)



CONTINUO

바로크, 계속된다

10월 31일 금 오후 7:30

보라동성당

런던에서 나폴리까지,
바로크의 노래

11월 1일 토 낮 12:00

파네시마 복합문화공간

아이들을 위한 바로크 음악 동화
작은새 프레디

11월 1일 토 오후 5:00

파네시마 복합문화공간

모차르트와 그가 사랑한
포르테피아노

11월 8일 토 오후 2:00

분당요한성당 요한홀

프랑스 궁정음악과
독일 교회음악



주최 | 수원교구 복음화국

주관 | 수원교구 성음악위원회 수원기�통릭고음악협의회(콘체르토 안티코)

후원 | 경기도 티켓 | 전석무료 (예약금 1만원, 예약금은 공연 참석 시 전액 환불됩니다.)

티켓예약 | 네이버에서 '무지카사크라 페스티벌' 검색 문의 | 010-9705-9156



N 네이버 예약

문화로 깊어지는 사유의 순간 야외 공연장 ‘심포니6’ 개관 사유원

- 개관 기념 10월 한 달간 국악·오페라·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 열려

‘K-정원’ 대표 주자, 대구 군위에 자리한 사유원이 새롭게 조성한 야외 공연장 ‘심포니6(symphony 6)’를 올가을 선보인다. 사유원의 상단부 명경 옆에 자리한 심포니6는 국악, 클래식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 안드레아 리베라니(Andrea Liverani)가 설계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리베라니는 장소성과 기능, 조형 사이의 균형을 탐구하는 건축가이다. 그간 밀라노 EXPO 2015 서비스 빌딩, 세레뇨 시청사, 베른 주거단지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국제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writer _조용수 기자 /photo _사유원 제공

심포니6는 ‘강철과 자연의 텐트’라는 콘셉트 아래 소규모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한 무대 규모로, 관람 좌석은 250석이 마련되었다. ‘종이 접기’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가는 공연장의 소재를 코르텐강으로 설정하되 종이로 접어낸 듯한 형태로 구현했다. 단 네 개의 접점으로만 대지와 접한 건축물의 모습은 강인함과 우아함, 긴장감과 안정성이라는 서로 다른 면모를 동시에 추구한다. 드넓은 팔공산의 풍광과 함께 사유원의 자연, 야외 공연장 심포니6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유원을 찾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가 오는 10월 매주마다 열린다.

가장 먼저 10월 3일(금) 국악 명인들이 펼치는 흥겨운 무대인



공연장 전경

〈팔공국악축제 1 : 세계 시나위 축제〉를 시작으로,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프린지 공연 ‘찾아가는 오페라 산책’이 10월 11일(토)에 열려 유명 오페라 아리아 하이라이트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300년 이상된 모과나무 108 그루가 노랗게 익어가는 사유원의 가을 시그니처 공연 ‘LOSA(Lsat day of October in Sayuwon)’은 10월 18일 (토) 크로스오버 그룹 윈썸 콰르텟이 함께해 귀에 익숙한 재즈, 팝송부터 다양한 영화 음악까지 감성 충만한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서 10월 25일(토)에 〈팔공국악축제 2 : 국악 & 성악 콜라보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10월 한달 간의 심포니6 개관 공연 시리즈가 막을 내린다.



2024년 국악 공연 <단골손님>



2023 <LOSA> 공연

“가을 정원에 담긴 풍류와 휴식”

사유원, 추석 연휴 이벤트 진행

- 팔공국악축제·관람객 전원 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혜택 마련

대구 군위에 자리한, 사람이 만든 자연의 정수 ‘사유원’이 10월 3일(금)부터 10월 12일(일)까지 2025년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열흘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석 당일 포함해 휴무 없이 전 기간 정상 운영해 사유의 숲에서 명절의 풍요로움과 평화로운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연휴 첫날인 10월 3일(금) 오후 3시에는 사유원 상단부에 새롭게 조성된 야외 공연장 ‘심포니 6’에서 <팔공국악축제 1 : 세계 시나위 축제>가 열린다. ‘심포니 6’는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 건축가 안드레아 리베라니가 설계한 야외 공연장으로, 사유원 곳곳에 자리한 알바로 시자, 승효상 등 국내외 거장들의 건축물에 이어 또 하나의 상징적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이번 공연은 세계 시나위 축제로 씻김손에서 이어지는 시나위 연주에 김경란 명무의 몸짓이 더해져 더욱 섬세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무대이



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즉흥 시나위의 묘미를 선보인다. 팔공산의 장엄한 풍광과 어우러진 가락과 춤사위가 한가위의 흥과 울림을 더하며, 관람객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사유원의 시그니처 정원인 풍설기천년의 가을 풍경이 담긴 엽서와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댄싱웨일의 프리미엄 ‘아임파인 모이스처 마스크팩’ 1매를 연휴기간 내 방문한 관람객 전원에게 증정하며, 제2주차장 앞 카페 ‘몽몽차방’에서는 음료 주문 시 모과 마들렌 1개를 제공한다. ‘현암 티하우스’에서는 티 마스터와 함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차를 음미하며 가야금 라이브 연주를 즐길 수 있다. 자연과 음악, 차가 어우러진 순간은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을 온전히 돌아보는 특별한 휴식이 될 것이다.

사유원 장정석 대표이사는 “추석은 한 해의 풍요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명절로, 사유원에서는 이번 연휴 동안 휴무 없이 운영해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라며 “자연 속에서 평화와 휴식을 만끽하며 특별한 한가위의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동대구역 왕복 셔틀 패키지	
이용 일자	10월, 11월 매주 토요일
패키지 포함내역	· 사유원 입장 · 왕복 셔틀
패키지 가격	93,000원
셔틀 이용 인원	40명
셔틀 이용안내	동대구역 출발 10:00 동대구역시내버스승강장 → 사용원 도착 11:00 사유원 제2주차장(몽몽마켓) 사용원 출발 16:30 사용원 제2주차장(몽몽마켓) → 동대구역 셔틀버스 출발시간 <small>※ 10월 18일(화)에는 LOSA 공연으로 인해 사유원 → 동대구역 셔틀버스 출발시간이 17:00로 변경 운영됩니다. ※ 셔틀 이용 시간은 교통사정에 따라 자전될 수 있으나 국가 기자 관 예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mall>
부대시설 안내	용용마켓(한식당)/용용차량 브런치마켓 : 사용원 입구 사람 레스토랑(사진매력가든), 가거한번 카페 : 사용원 내부
<small>※ 식사, 티하우스 등 기타 프로그램 예약을 함께 원하실 경우 사용원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바랍니다.</small>	

SAEWON

“우린 미술 감상하러 병원에 간다”

‘밝음에 관하여’ 황주리 展示會

- 9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뜻깊은 전시를 진행한다. 서울대병원 대한외래 B3층 제1전시실에서 9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하는 ‘밝음에 관하여’ 展은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황주리의 대작을 통해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밝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한다.

writer _임유이 기자 / photo _황주리 제공



‘밝음에 관하여’ 展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황주리 작가의 탯줄과도 같은 ‘식물학’ ‘삶은 어딘가 다른 곳에’ 시리즈다. 해바라기·백합·선인장이 꽃송이가 얹히고 설켜 끝없이 뻗어 나가는 ‘식물학’ 연작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일상과 이벤트가 날실과 씨실처럼 직조된 우리 삶을 상징한다. 아픔이 있으면 치유와 기쁨이 따라온다는 의미의 ‘식물학’ 시리즈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으로 밝은 기운을 받는 느낌이다.

‘삶은 어딘가 다른 곳에’ 시리즈는 삶이 우리가 꿈꾸듯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바로 그럴기에 감상자는 역설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은 그리는 것뿐 아니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 전문가들은 “미술 감상은 언어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뿐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불안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황주리 작가는 “서울대병원 측의 전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외출이 쉽지 않은 어린 환우들에게 그림 감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서였다. 삽막한 병원이지만 밝은 그림을 통해 잠시라도 밝음이 머물렀다 가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남의 미감, 화이부동(和而不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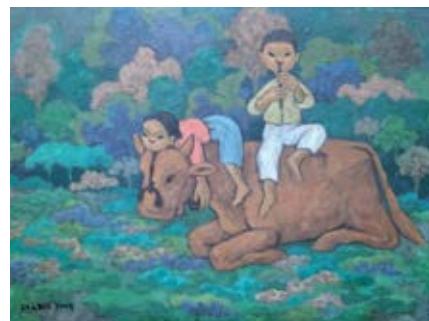
경남 거제시 갤러리예술섬&해조음미술관

거제, 통영 등 부산, 경남, 경북 근현대미술 원로작가와 영남지역 중견, 청년 현대미술가 등 17인과의 조우 거제도 추천 예술여행
해조음미술관과 갤러리예술섬이 주최했고, 예술법인 가이아(주)가 주관
갤러리카페 온더선셋, 갤러리범향, 이재효갤러리, 거제도해수보양온천 온기당 후원

아트브랜딩을 지향하는 갤러리예술섬(Gallery Art Island)과 해조음 미술관(HAEJOUM ART MUSEUM)은 아름다운 명품 비경 즐비한 경상남도 거제시를 “예술여행, 문화관광 명소 만들기” 위한 문화 마케팅 일환으로 ‘영남의 미감, 화이부동(和而不同)’展을 공동기획 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군자는 화합하되 자신의 소신이나 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독창적이고 조화로운 미학과 시대정신 추구하는 예술가 상징 ‘아트 키워드’로 차용했다.

이번 ‘영남의 미감’ 전시회는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갤러리 예술섬(거제시 일운면, 화요일 휴관)에서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해조음 미술관(거제시 하청면, 화, 수요일 휴관)에서 전시한다. 참여 아티스트는 감민경(부산) 김성호(대구) 김종식(부산) 김형근(통영) 남관(청송) 성백주(상주) 신선주(거제) 양달석(거

제) 위세복(김천) 이재효(합천) 장태묵(부산) 전혁림(통영) 조덕래(울산) 조영재(함양) 최석운(성주) 하인두(창녕) 한생곤(사천) 이다.



양달석 작품



김종식 작품



최석운 작품



이재효 작품

갤러리 예술섬 함의정(문학박사)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작년 10월 개관한 갤러리예술섬과 올해 8월 개관한 해조음미술관의 공동기획전이다. 영남과 호남·중앙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지피지기(知彼知己)라는 지역 정체성을 사유하는 미술 전시회”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문화관광도시 거제시의 국공립 문화공간·아트센터와 사립 미술관·박물관·갤러리 등 ‘거제 명품관광 예술지도’를 그리는 작은 시작이었으면 한다. 거제도 힐링 여행과 아트투어를 선호하는 국내·외 관광객, 미술을 사랑하는 거제 시민의 예술 문화 향유 공간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하인두 작품



김형근 작품

和而不同 展

영남의 미감,

展

"화이부동" 전

ARTIST

감민경 김성호 김종식
김형근 남관 성백주
신선주 양달석 위세복
이재효 장태묵 전혁림
조덕래 조영재 최석운
하인두 한생곤

9 24 수 · 10 31 금 갤러리예술섬 (화 휴관)
11 6 목 · 12 8 월 해조음미술관 (화수 휴관)

주최 해조음 미술관 갤러리 
후원 갤러리카페 온더선셋 갤러리 범행 이재효 갤러리 거제도해수보양온천 온기당

경남 거제시 명품 문예강좌로의 초대!

‘팔색조 예술대학’ 2기 모집

- 지역 ‘문화리더십’ 개발 예술아카데미 및 ‘스트링아트’ 예술체험 교육 수강생 모집

거제시민, 부울경 문화예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한 예술교육 강좌, 2기 ‘팔색조예술대학’ 수강생 모집한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갤러리 예술섬’에서는 지역 문화관광마케팅, 아트브랜딩 필요성,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 지역미술 거장 조명, 예술가와의 대화와 작가세계 아트토크, 미술품 투자 및 아트테크(Art Tech) 등에 유익하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성황리에 종료된 1기에 이어 “삶이 예술을 머금고 숙성”되는 2기 ‘팔색조 예술대학’은 갤러리예술섬 주최, 예술법인 가이아(주) 주관으로 10월 말부터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6개월 과정 (총 5회 강의+ 1박2일 국내 아트투어 및 수료식 등)이며 장소는 갤러리예술섬(거제시 일운



면 소동리 920)의 제2 갤러리이다.

시작은 팔색조 명품배우 이재용(영화배우, 탈렌트)의 ‘연기 생활 인연과 예술’이다. 바쁜 연기자의 삶을 살면서도 부울경 연예인, 기획자 모임 ‘갈꿈회(갈매기의 꿈, 직전회장)’ 등 애향심 봉사활동도 하며, 최근 인생 수행 에세이 ‘그날 나는 봇다를 보았다’ 책을 내는 등 부산대 철학과 출신 딴따라(?)의 내공 있는 문화강연이다.

2강은 “영남의 가우디”라는 애칭의 양덕복 건축가이다. ‘상상 항해’라는 주제로 가덕신공항을 지역 정체성 담아 “이순신 공항” 네이밍 주장하며, 거제도 다시 못 올 기회에 건축도시, 문화예술관광 도시 지향해야 하는 당위성 등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와 함께 푸다.





3강은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 역임한 한창윤 용봉 문화예술연구소 대표가 ‘미술시장 트렌드와 투자’를 강의한다. 1기 강좌 때 인기 좋았던 ‘동시대미술 이해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의 2탄 강연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 콜렉션 소장품 국가 기증으로 관심이 뜨거운 미술품 투자와 컨템포러리아트 흐름에 대한 유익한 강좌이다.

4강은 거제도 출신 “동심의 화가” 양달석 화백의 삶과 예술을 동시대 화가 작품들과 함께 강연하는 권용복(양달석미술관관장) 작가의 ‘양달석과 시대의 화가들’이고, 5강은 2018 평창 문화올림픽 FAF 예술감독 등 역임한 김형석 컬처크리에이터가 문화마케팅, 아트브랜딩, 해외 예술축제 도시, 문화선진국 도시재생과 문화재생 성공사례 등으로 푸는 ‘문화예술의 힘’을 강연한다.

마지막, 1박2일 예술여행은 비티스에스(BTS) 알엠(RM) 방문으로 아미(ARMY)들 성지가 되었던 경기도 양평군 이재효갤러리이다. 경남 합천 출신이며 미술에서 한류 주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조각가로 세계 최고층 중동 두바이 163층 빌딩 ‘버즈 칼리파’ 등 대형 공공미술 작품 설치되어 있는 “자연을 탐하는 조각가”的 미술관 관람하고 ‘작가와의 대화’ 가진다.



특히, 이번 가을강좌에는 지역 청소년, 거제시민 창의력 계발 예술교육으로 “문화공동체 복합문화공간” 지향하는 현대미술 체험 아트프로그램 신설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등 초상조각 작품을 만들어 보고, 고가의 작품을 실비로 소장할 기회 제공하는 ‘스트링 아트 체험’ 아트 강좌도 연다.

낮 시간과 저녁시간 2개의 체험 강좌 열 계획이며, 스트링 아트 담당 강사는 위세복 조각가로 흥익대학교 건축학과 중퇴,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활발히 창작활동 하는 아티스트이다. “존재의 부재적 거리” 작품 추구하며, 2007 일본 토야무라 국제조각비엔날레 대상 수상, 2004 KBS 자연환경미술대전 대상 등 수상했고, 강원도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야외 인기 포토존 ‘박수근 스트링아트 조각’작품 설치한 작가이다.

팔색조예술대학 예술교육 담당 함의정 큐레이터(문학박사)는 “유명 글로벌 럭셔리 명품 브랜드가 ‘아트마케팅’ 하는 이유? 거제도 비경과 예술이 만나 ‘예술섬’이어야 하는 이유? 사유하며 예술적 감수성, 인문학적 지성 겸비한 지역 오피리언 리더 양성하기 위한 명품 문예강좌이다. K컬처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예술계 인사, 예술가들 강의와 국내 아트투어 등으로 ‘지상 최후의 명품! 미술품’ 속에서 심미안 키우자. 예술의 섬에서 만나는 명품 아트살롱, 예술아카데미 함께하는 ‘지역 사랑, 예술사랑’ 네트워크에 초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마인드 갖춘 지역 리더십 개발 위한 팔색조예술대학은 지속 가능발전 예술사랑포럼으로 함께 성장할 뜻있는 지역민의 동참을 기다리며 수강생에게는 기획전시 초대, 갤러리를 ‘문화 사랑방’ 항시 이용 등 특전을 준다. 그리고 갤러리예술섬 1,2전시장은 ‘영남의 미감, 화이부동’ 기획전 중이고, 차기는 신라 대국통 자장율사 흔적 찾은 중국 불교미술 기행전 ‘흑멸백홍, 천년의 사유’ 미술전시회 예정되어 있다. 갤러리 뒤 삼나무숲(art forest) 3전시장은 생태미술 야외조각전이 “자연과 조화로운 예술”을 추구하며 연장 전시 중이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적 향연 콘체르토 안티코 양상블 ‘모두의 바로크’

- 9월 23일 오후 6시 파네시마복합문화공간 B1 야외 잔디밭
- 단순한 고전음악 연주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긴 음악적 축제

가을의 낮과 밤의 시간이 똑같다는 추분(秋分)인 9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파네시마복합문화공간’ 야외 정원에서는 음악을 사랑하는 지역주민 200여 명을 모시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콘체르토 안티코 양상블’의 ‘모두의 바로크’ 연주회를 개최했다.

writer&photo _조용수 기자

전통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유럽의 아름다운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이번 ‘콘체르토 안티코 양상블’의 ‘모두의 바로크’ 음악회에서는 리코더, 첼로, 그리고 하프시코드(고전 건반 악기)가 어우러진 하모니가 잔디밭 곳곳에 자리한 테이블 사이 사이를 훑으며, 각자의 찻잔 속에 담겨져 관객들의 귀와 눈 그리고 마음속에 녹여졌다.

바로크 음악은 화려하고 부드러운 멜로디, 여러 악기가 서로 어

울리는 복잡한 구조, 그리고 연주자가 곡마다 개성을 더할 수 있는 장식음이 특징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각 곡마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감정이 담겨 있어, 누구나 쉽게 바로크 음악의 매력을 즐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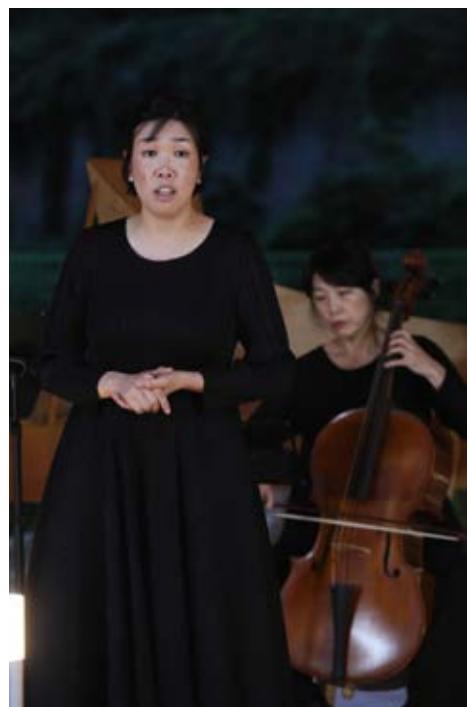
김재연이 연주하는 하프시코드의 화려한 음색의 아르페지오와 배기정이 잡아주는 묵직한 바ロック첼로의 음률, 이윤숙의 손끝에서 조정되는 활의 여행에 따라 비올로네가 함께 만들어내는 깊



은 저음 그리고 허영진이 가슴으로 전해주는 리코더의 맑고 밝은 선율, 끝으로 오선주가 토해내는 성악의 감정을 전하는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곡마다 들어 있는 독특한 꾸밈음(트릴, 턴 등)은 바로크 음악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함께 자리한 관객들에게 전해주는 가을 선물과도 같았다.

이번 음악회는 17~18세기 유럽의 바로크 음악 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었으며, 즉흥성과 장식음, 급격한 감정변화와 화려한 대위법, 그리고 통주저음을 기반으로 한 악곡들이 시대적 풍미와 예술적 깊이를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유럽 궁정·교회의 화려함과 정서적 깊이

를 함께 음미할 수 있는 뜻깊은 음악적 향연을 통해 바로크 음악의 환상적인 세계로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이번 공연에서는 핸델의 오페라 아리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과 골드베르크 아리아, 쿠프랭의 클라브생 명곡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로크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바로크 음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었으며, 또한 ‘파



네시마복합문화공간'의 따뜻하고 열린 분위기에 걸맞게,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고전음악 연주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적 축제였다. 바로크 음악의 화려하면서도 친숙한 선율은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오고, 이미 알고 있는 관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다시 한번 전해주었다. 가을



저녁을 수놓은 리코더의 맑고 경쾌한 선율, 첼로와 비올로네의 따뜻한 저음, 하프시코드의 화려한 울림, 그리고 성악의 감동적인 아리아가 어우러져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와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이날 ‘파네시마복합문화공간’의 아늑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가와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프로그램 및 작품 설명

*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1681-1767) 리코더를 위한 소나타 C장조 Sonata in C major, TWV 41:C5 - 독일 바ロック의 대표적 작곡가 텔레만의 리코더 소나타는 리코더의 밝고 화려한 테크닉이 돋보인다.

*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1685-1759) 오페라 ‘리날도’ 울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 오페라 ‘세르세’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Ombra mai fu) - 바ロック 오페라의 거장 헨델의 두 아리아는 격정적인 감정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독창적이고 날익은 선율이 바ロック 특유의 급격하고 서정적인 매력을 전달해 감동을 선사한다.

*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1685-1750)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사장조 BWV 1007,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 바흐의 첼로 모음곡은 단일 악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낸 작품이다. 명확한 리듬, 대위법적 구조, 즉흥적인 장식음 등 바ロック 음악의 핵심이 담겨 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아리아 역시 우아한 선율과 구조적 완성도가 돋보이며 하프 시코드의 아름다운 음색이 돋보인다.

* 도메니코 가브리엘리(1651-1690) 소나타 1번 G장조 - 첼로 소나타의 원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자유로운 구성과 베이스(통주저음)의 역할이 강조된다. 초기 바ロック 첼로 음악의 개척자로서 가브리엘리는 풍부한 감성과 명료한 선율을 펼친다.



* 프랑수와 쿠프랭(1663-1733) 신비한 바리케이드(Les Barricades Mystérieuses) - 프랑스 바ロック 클라브생 음악의 대표작이다. 부드러운 리듬 변화와 신비로운 화성이 반복되며, 바ロック적 장식과 유희적 요소를 극대화한다.

* 야코프 판 에이크(1590-1657) 잉글리시 나이팅게일(The English nightingale) - 리코더의 시적·자연적 묘사를 극대화한 작품. 즉흥적 장식음과 다양한 변주를 통해 바ロック 시대의 즉흥성과 표현력, 기교적 연주가 선명히 드러난다.

* 안토니오 비발디(1678-1741) 리코더와 첼로를 위한 트리오 소나타 RV86 - 이탈리아 바ロック 협주곡의 전형. 역동적인 선율과 강한 대위법적 움직임, 개성 넘치는 변주가 반영되어 있다. 비발디 특유의 빠르고 생생한 리듬과 감각적 사운드는 바ロック 시대 관현악의 발전을 보여준다.



미완성의 寶庫 예술가의 작업실

월요일 아침은 여느 날보다 조금 더 고단하다. 휴식보다는 노동에 익숙해진 삶인데 벌써 커피 탄 내가 그립다. 아침 뉴스를 통해 유명인의 죽음 소식을 접한다. 사망 경위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과로사로 추측하는 댓글들이 많다. 최초의 과로사 사례는 1969년 일본 신문사 사원의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였으며 이제는 심심찮게 관련 뉴스들을 접한다.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우리네 이야기다. 과로는 누적되며, 때때로 삶은 무겁다.

writer & photo _ 손다영 아르케컬처 대표

예술가들은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까? 그들의 작업실에는 휘갈겨 쓴 원고, 드로잉, 악보들이 가득하다. 실패작인지 미완성인지 알 수 없으며 때가 되면 다시 주목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모차르트의 레퀴엠, 바흐의 푸가의 기법은 클래식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미완성’ 작품들이다. 슈베르트는 31살의 짧은 삶을 살았고 생을 마감하기 6년 전 여덟 번째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다. 모차르트는 당시에 베일에 싸여 있던 자에게 레퀴엠 작곡을 의뢰받는다. 바흐는 ‘푸가’라는 작곡 기법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대작『푸가의 기법』을 기획했다.

세 사람은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 펜을 들었다. 슈베르트는 600여 개의 가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한 대를 소유하지 못했다. 돈과 명성보다는 음악적 영감에만 충실했다. 모차르트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인물이다.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아 생활하는 삶에서 자립적인 음악 생활을 시도했다. 갈츠부르크 대주교의 악단에서 나와 빈에서 독립적인 예술가의 삶을 시작한다. 과로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바흐는 신앙적, 예술적, 철학적 탐구심을 동력으로 삼아 작곡을 시작했지만, 당시 거의 실명 상태였고 백내장 수술이 잘못되어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는다. 육체적 고통에도 그들은 작업실로 향한

“

예술가들은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까?

피카소는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파리에서 망명자처럼 살았으며

막스 에른스트는 ‘퇴폐 미술가’로 낙인찍혀 수용소에 가게 되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 혁명 이후 추상 미술을 위해서 독일로 망명하였고

네덜란드 출신인 몬드리안은 활동지인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망명한다.

예술가들의 작품이 우리가 살아낸 시대의 증거가 된다.

깊은 우울과 상처가 있지만 작업을 통해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것이 예술가들이다.

”

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탁월한 음악에 대한 욕망은 평생에 걸쳐 닦아온 본능이기에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술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로 여행을 떠난다. 상인들과 외국인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무역을 통해 크게 부를 쌓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화국은 혼외자와 전염병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 경제적인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고 가톨릭 국가에서 피에타(자비)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와 버려진 자들을 거두어들였다. 비발디는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라고 불리는 교육기관 겸 보육원에서 여성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감독하며 작곡과 지휘를 했고 여성 음악가로 성장한 소녀들은 스승 비발디의 음악으로 기량을 향상했으며 도시의 품격을 상징하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했다. 공화국의 음악 외교는 사제 비발디의 작업실로부터 출발했으며 출중한 재능을 밟친 삼아 빈, 로마,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도시들을 돌면서 작품을 알리고 후원자를



술’로 낙인찍혀 수용소에 가게 되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 혁명 이후 추상 미술을 위해서 독일로 망명하였고 네덜란드 출신인 몬드리안은 활동지인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망명한다. 미국의 젊은 화가 잭슨 폴록은 대공황 시기에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했지만 알코올 중독과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폐기 구겐하임의 후원을 받아 새롭게 도약한다. 마크 로스코는 러시아 유대계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성 혼란을 겪었고 국제적 명성을 얻을 만큼 성공했지만 깊은 우울함에 시달렸다. 크나큰 비극을 겪은 이들의 작품들이 베네치아로 몰려들었다. 동시대 예술가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집했다. 말년은 어땠을까. 후원자들은 떠나고 청중들의 취향 변화로 인해 가난한 채로 죽음을 맞았다. 사제 서풍을 받았으므로 결혼이 불가능했고, 장례는 베네치아가 아닌 빈의 성 스테판 대성당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간소한 장례식’으로 음악 없이 치러졌다. 죽음을 앞둔 순간, 부디 음악만은 함께하였기를.

비발디가 죽은 지 200여 년이 지난 1976년, 미술 수집가 폐기 구겐하임은 베네치아에 미술관을 설립한다. 당시 많은 미술작가가 전쟁으로 인해 망명길에 올랐다. 피카소는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파리에서 망명자처럼 살았으며 막스 에른스트는 ‘퇴폐 미



■ 손다영 아르케컬처 대표 / 바이올리니스트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린 전공 학사 졸업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린 전공 석사 수료
- 현재 아르케컬처 무지카 클래시카 음악회 (2022~), 금요반달클래식클럽(2022~), 용인 일보 오피니언(2025~) 강연 및 기획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에로티시즘(eroticism)의 단초가 되고 원인이 된 ‘Nude’의 솔직함

누드(nude)와 알몸(naked)은 사전적 개념이 다르다. 알몸은 그냥 단순히 옷을 벗어버린 상태를 말하지만 누드는 여기에 예술개념이 접목돼야 한다.

writer&photo _ 김재철 (라치과 원장)

언제부터 인간들이 옷이라는 두 번째 피부를 만들고 입었을까? 구약성서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어 동방의 에덴에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살게 했으나,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후 전에는 알지 못하던 벌거벗은 몸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이처럼 인간들은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 옷을 입었다고 한다. 다른 짐승들처럼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털이나 단단한 가죽이 없는 인간이기에 그렇겠지만 오늘은 그냥 누드에만 포커스를 맞추자.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

이런 성경의 기록을 빌리지 않아도 남자에게 여자의 벗은 몸, 여자에게 남자의 벗은 몸은 언제나 신선한 충격(?)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작품’인 것이다. 물론 이런 감정은 선악과를 먹기 전 최초의 인간들이 가졌던 절대순수의 감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곳과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부분, 꾸미지 않는 원시 그 자체, 인공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전라, 그리고 그것을 내보이는 솔직함과 순수의 의미에서 벌거벗은 몸은 부끄럽기에 아름답고, 꾸미지 않았기에 당당한 것이다.

‘네이키드’(nude)가 알몸이 된 자연스러운 상태라면 ‘누드’(nude)는 관람자의 시선을 전제로 발가벗겨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벗겨진 인간의 모습은 이미 옛날부터 미적인 호기심을 일으켜 조각이나 미술, 문학,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사진으로 재창조되었으며, 또 언제나 에로티시즘(eroticism)의 단초가 되고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에로티시즘은 우리의 삶이고, 문화다. 그래서 모든 삶은 더욱 에로틱해져야 한다.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근엄함, 엄숙함에서 탈출해야 한다.

성의 미학

요즘 벌거벗은 알몸으로 생활하거나 그런 일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누드주의와 누드도 패션의 일부라는 패션누드가 유행이다. 작고한 연세대 마광수 교수는 “위선은 솔직하지 못한데서 나오고 솔직하지 못한 것은 도덕적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자유가 좋다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꼭 ‘방종’과 대비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성이 즐거운 것이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퇴폐’나 음란을 꼭 동반시켜 자신의 성적 욕구를 구구히 변명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이 말에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일부분은 동감이 간다. 하도 탈이 많은 사람의





말이라 조심은 되지만, 위선은 솔직하지 못한데서 나온다는 구절은 맞는 말이다.

누드의 진정성에는 반드시 예술적 개념으로 접목되어야 건강하다. 그리고 누드는 서로를 추구하면서 사랑이라는 상태에 빠진다. 그것은 눈길의 마주침에서 오는 놀라움과 부끄러움,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냄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음으로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성의 미학이라고 부른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 인간적으로는 가장 순수하게 합일하는 길, 바로 그것이 성(性)이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승화된 사랑은 없다. 그래서 성과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 인간이 풀어야 하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우리들의 삶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어느 학자는 “누드(nude)와 알몸(naked)은 사전적 개념이 다르다. 알몸은 그냥 단순히 옷을 벗어버린 상태를 말하지만 누드는 여기에 예술개념이 접목돼야 한다”고 했다. 어쨌든 인간의 벗은 몸이 예술 소재의 중심에 있음을 다 아는 사실이다. 인간들은 처음 누드를 관능, 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으며, 현대에 오면서 페미니즘, 동성애와 같은 사회적 담론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기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누드는 아름다움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군



주국가가 아니어서 다행(?)스럽게 밝히는 사실은, 11살에 일본에 건너가 30년 가까이 볼모생활을 했던 비운의 조선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은 누드 그림에 심취했다고 한다. 그는 또 일본 아카사카의 자택 근처에 있는 고급 요정에서 일본 기생들을 모델로 그린 작품들이 1990년대 언론에 일부 공개됐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누드는 누구나 즐긴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컷들이.



김재철 라치과 원장

- 일본동경치과대학 보철학석사
- 일본국립히로시마대학 구강외과학 박사
- 캐나다 맥길대학 임플란트 연구원
- 스위스 SIC 임상연구원
- 국립의료원 자문치과의사

연애에 빠지고픈 남녀를 위한 ‘가을 사랑 방정식’

유명인의 스캔들(또는 로맨스)이 터지면 관중은 바쁘다. 그(녀)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지에 대한 ‘촌평’이 쏟아진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을까, 그녀는 그를 사랑했을까. 저마다 근거와 추론을 내놓는다.

writer _김다나 작가 / photo _W Media DB

누구나 평생 한 번은 겪게 마련이지만 많은 사람들 이 주고 받는데 실패하는 쉽고도 어려운 감정, 사람 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 는 불가사의한 충동, 때로 높은 사회적 지위나 단란 한 가족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사람을 몰아가는 열정. 이는 바로 사랑 이다. 가을은 사랑하기 좋 은 계절이다. 사랑의 본질 을 탐구해보자.



은 유부녀 ‘어리’와 사랑에 빠져 세자의 지위를 박탈 당했다. 로맨스에 빠진 이들에게 사랑은 마약과도 같았을지 모른다. 함께 있 으면 행복하고 바라만 봐 도 좋았으리라. 사랑은 과 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실 제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낸 다. 사랑에 빠졌을 때 인 간의 뇌 속에서는 마약이 초래하는 듯한 변화가 일

어난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마치 마약을 먹었을 때처럼 급격히 분비된다. 도파민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펜에틸아민(phenethylamine) 계열 호르몬이다. 사 랑 초기에는 펜에틸아민 호르몬이 집중 분비된다. 중독효과가 있 어 한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이 호르몬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인지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이 있다. 펜에틸아민 계열 호르몬은 길게는 3년까지 나온다고 한다.

사랑은 마약

1937년 영국 왕 에드워드 8세는 이혼녀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내놓았다. 이보다 500년 전 조선의 세자 양녕대군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때가 펜에틸아민이 나오는 시기다. 열정적인 연애의 기간이 끝났다고 서로의 침체기가 왔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다. 다른 차원의 사랑이 시작된다. 열정 적이지는 않지만 서로 아끼고 오랜 기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는 따뜻한 감정인 애착이 생긴다. 애착은 모유 수유 시 분비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 호르몬과 관련이 깊다. 옥시토신은 성 관계 때처럼 1분에 40회 이상 피부를 접촉할 때, 껴안을 때, 낭만 적인 대화를 나눌 때 분비된다고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5배 정도 옥시토신 호르몬 수용체가 많아 이 호르몬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 성 관계 시 여성의 스킨십을 중요시하는 과학적인 이유다. 위로받고 보호받을 때 나오는 엔돌핀도 넓게 보면 사랑 호르몬이다. 사랑하던 남녀가 펜에틸아민 단계에서 옥시토신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다를 때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기며 이럴 때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건 본능이다. 왜 자신의 짹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무도 시원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한다. 사랑은 본능을 관장하는 변연계(중뇌)가 담당하고 있다. 본능이란 비논리적이다. 중뇌는 사고하고 계산하는 능력, 논리적인 설득력을 맡고 있는 대뇌 피질과 달리 논리보다는 육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어떤 본능이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걸까. 어떤 이는 배우 '장동건'이나 '김태희'의 이름만 들어도 환호하지만 어떤 이는 실제 얼굴을 보고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고 싶은 본능이 사랑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은 무의식중에 자신과 유전자가 많이 다른 사람과 결합하기를 바란다는 설명이다. 자신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번성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 뉴멕시코대 생물학자 랜디 손힐 교수는 10명의 남성에게 흰색 상의를 입고 농구하게 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땀 냄새가 뱐 옷만을 보여 주며 '가장 섹시한 냄새가 나는 옷'을 고르도록 했다. 폐로몬 향기로만 상대방을 고르는 셈이었다. 남녀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여성들



은 자신과 유전자 구조와 면역체계가 많이 다른 남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힐 교수는 "다양한 유전자를 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은 진화론적으로 훌륭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사랑을 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해당 호르몬을 주입했을 때 없던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며 사랑은 복잡한 현상이라 물질 현상으로만 규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한다.

달콤한 칭찬은 유혹의 묘약

적절한 짹을 만났다고 저절로 사랑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애만 태우는 사람이 많을 터.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이 처음 사귀는 단계에서는 데이트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평범한 곳보다는 약간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좋다. 매력적인 상대를 만날 때, 성적 욕망을 느낄 때 인간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공포나 불안을 느낄 때도 분비된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언어도 사람을 유혹한다.

"당신이 내 손을 잡은 두 번째 남자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을까?"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첫 번째 말에 대해선 '거짓말인 것 같지만 어쩐지 설렌다'는 응답이 많았다. 치킨을 먹자는 말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아첨과 칭찬도 효과적이다.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에 설레지 않을 여성은 드물다. 남녀 관계에서 솔직함은 중요한 미덕이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적절한 환상을 심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인간은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 여성 작가 앤젤라 카터는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조상인 고등 영장류보다 천사와 연계하려 한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을 가장 잘 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라고 한다. 뛰어난 화장술로 카





이사르에게는 위대한 이집트 여왕의 이미지를, 안토니우스에게는 아프로디테 여신과 같은 환상을 심어 주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방에게 부모나 자식의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줬던 유년의 경험을 일깨우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신과 의사로 활동할 때 많은 여성 환자는 프로이트에게 반했다. 그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어느 신경과 의사든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건 나빴건 아버지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유년기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자극한다고 한다. 성적 매력도 빼놓을 수 없다. 메릴린 먼로, 이효리 등 스크린이나 TV를 점령하는 수많은 ‘섹시 스타’의 인기만 봐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성격을 가꾸는



게 좋다고 한다. 미국 루저스대 인류학자 헬렌 피셔 교수는 뇌기능자기공명영상(fMRI) 촬영을 통해 사랑에 빠진 여성은 행동을 관찰하는 뇌 부위인 ‘해마’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남성이 남편,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할 것인지 관찰한다는 해석이다. 반면 남성은 허리 대 엉덩이의 비율이 7 대 10인 ‘잘 빠진 몸매’의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을엔 사랑을

가을이면 묘한 설렘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은 우울하거나 외롭다는 감정이 생기기 쉽다. 사람은 원래 일조량이 줄어들면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는 대신 기분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우울감을 느낀다. 특히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성취’를 강요받아 온 50대 남성들은 또 한 해가 가고 인생이 지나간다는 느낌에 혼란감과 압박감을 느끼기 쉽다는 것이다. 대기업 임원 등 성공한 남성들이 겪는 제일 큰 딜레마는 마음을 터놓을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일이나 사업으로 엮이지 않고 그저 한자리에 늘 있으면서 자신을 격려해 줄 이성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 남성과 여성은 나이별로 왕성해지는 호르몬이 다르다. 20, 30대의 남성은 도파민과 남성호르몬이 왕성해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더 매달리려 한다. 50대 이상의 남성은 여성호르몬이 늘어 가족의 배려, 늘 주고받는 사랑을 원하게 된다. 반면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기에는 여성호르몬이 왕성해 자신과 아이를 돌봐주는 남성을 원하며 나이가 들어서는 다소 성취 지향적으로 바뀐다. 이렇듯 남녀는 서로 다르다. 가족은 과학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의 만남이기도 하다.

눈먼 열정은 뜨거울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건전할 수도 있다. 건강한 사랑을 원한다면 가족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족끼리 안아 주고 사랑을 표현하라. 원숙한 관계를 멋있게 만들어 주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흐르고 사랑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강 음 이 야 기

가을사랑 신계행

40주년 콘서트



2025. 11. 7. (금) PM 7:00

스카이 아트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3길 65



전영록



해바라기

주최·주관

선엔터테인먼트

협찬사

(주)라쉬반, 퀸봄, 천리 식자재마트, PORMOM, 민치과

티켓

R석 70,000 S석 50,000

티켓문의

선엔터테인먼트 고성태 010-3233-9388

시니어, 반려견과 일상이 정신건강과 삶의 질 높여

- - 혼자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writer _백경석 기자 / photo _pixabay



시니어들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남모를 외로움과 자기 스스로의 고립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해 온 은퇴자라면 더욱 그 정도가 깊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나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교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반기 인생의 종점 정류장을 하차한 정년 퇴직자들에겐 그들만의 공감을 느낄 장소와 모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은퇴자들이 당구장으로 회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곳에는 은퇴자만의 리그와 그들만의 문화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이란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상호작용이 때로는 건강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노년의 상호작용은 어쩌면 ‘나만이 느끼는 작은 유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니어들이 주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는 대상은 은행 직원, 단골 카페의 주인, 자주 찾는 병원의 의사들로 이들과 소통을 통해 자신의 현재를 알리고 싶어하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에 이러한 소통은 노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긴밀하지는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수다를 떠는 사소한 ‘나만이 느끼는 작은 유대감’은 개인 스스로의 긍정적인 기분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에 빠질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긴밀한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약한 유대(weak ties)’ 또는 ‘주변적 유대(peripheral ties)’라고 부른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급생, 동료, 이웃, 종교 신도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킨다. 커피숍이나 대중교통 경로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이 범주로 분류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시니어들은 이러한 ‘약한 유대(weak ties)’ 또는 ‘주변적 유대(peripheral ties)’를 일반 시니어보다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더욱 많아진다. 반려견과의 산책으로 통해 다른 견주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반려견주끼리 만나는 정해진 만나게 되는 다른 견주와의 소통을 통해 또다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견 놀이터에서 자주 마주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려견의 이름은 알아도 정작 그 사람의 이름이나 상황에 대해선 모를 수 있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이나 날씨에 대한 즉흥적인 대화가 자주 오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노년층의 외로움과 고립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영국 서섹스대의 질리안 샌드스트롬 교수(심리학)는 “약한 유대는 기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한 유대는 내성적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유대 관계가 약한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한 사람들은 교류가 적은 사람에 비해 더 큰 행복감과 웰빙 및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려견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 반려견과 함께 지내면 불안이 줄고 활동량은 늘어나는 등 일상에 활기가 생긴다. 반려견은 특히 평생 해온 일에서 물러난 시니어들, 자유롭게 운용할 시간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찾아진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미국 건강 매체 ‘웹엠디’가 시니어들에게 특히 어울리는 반려견 품종을 소개했다.

<미국 건강 매체 ‘웹엠디’가 소개한 시니어들에게 특히 어울리는 반려견 품종>



푸들

두뇌가 비상하고 훈련하기 용이하다. 심성이 다정하고 부드러운 것, 견주에 대한 유대감 혹은 충성심이 강한 것도 장점이다. 필요한 운동량은 많지 않아서 매일 함께 산책을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단 특유의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



펜브로크 웨일시 코기

충명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개. 견주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끄는 걸 좋아한다. 작지만 바깥 활동을 즐기기 때문에 매일 산책을 해야 한다. 또 많이 짖는 편이기 때문에 함께 살려면 주거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퍼그

실내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잘 따른다. 활동량이 많지 않고 별로 짖지도 않는다. 견주와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거나 움직임이 느린한 시니어도 무리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대신 먼지 등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얼굴의 주름은 자주 펴줘야 한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커다란 덩치. 그러나 성격은 유순하다. 충성심도 강해서 노년을 함께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다. 단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들이려면 건강 상태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바네즈

작고 털이 복슬한 쿠바 원산의 개. 성격이 밝고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 똑똑하고 훈련을 하면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치료견으로 활약하는 경우도 흔하다. 운동량은 많지 않은 편. 같이 시간을 보내며 빛질을 자주 해 주면 좋다.

4°24°
DOKDO

131°52'10"E · 37°14'26"N



“대한민국의 자부심, 독도를 담다.”

쌀 100% 증류식 소주



4°24° 독도소주 17° 21° 27° 37°

울릉도 해저 1,500m에서 추출한 천연 미네랄 함유

왜 밝은 비글은 어두운 실험실로 보내졌을까?

- 사람을 잘 따른 결과, 사람에게 고통 받다
- 내가 구조하려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writer_유영배 대표 / photo_pixabay / 원고 제공_마니에프 드 부아르
 유영배 :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오보 베지테리언(Ovo-vegetarian) : 육류, 생선, 유제품을 먹지 않고 알류는 먹는 채식인)이며, 구조한 비글들과 함께 충남 논산의 비글 쉼터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만화, <스누피>의 모델이 된 개는 ‘비글’이라는 견종에 속한다. 19세기부터 무리지어 초원을 질주했던 비글은 원래 사냥견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의 ‘스누피’, 비글은 대개 실험견이다. 따라서 가장 많이 ‘안락사’되거나 해부로 주검을 맞이하는 비운이 개다. 그러면 어쩌다가 초원을 누비며 왕성한 에너지를 자랑하던 비글이 어두운 실험실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 지난 200년 간 사냥에 특화돼온 비글은 사람과 가까운 개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 이런 성격 탓에 가장 많이 실험에 이용되고 있다. 비글은 성격이 매우 밝고 낙천적이며 활동적이다. 이런 점이 무척 매력적이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10년 이상 키우고 싶은 중형견으로 인기를 누려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고 낙천적이며 사람을 잘 따르는 비글의 특성은, 인간이 그들을 어두운 실험실로 몰아넣는 계기가 됐다.



사람을 잘 따른 결과, 사람에게 고통 받다

신약개발처럼 정밀한 과학적, 의학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험에서는 인간과 가장 장기가 비슷한 동물인 개를 실험에 많이 활용한다. 아무리 사람과 가장 친한 동물이지만, 개들에게 매일 주사바늘 등 실험도구로 고통을 가한다면 도망치려 하거나 연구원을 물 수 있다. 하지만

비글은 연구원이 다시 주사바늘을 꽂으려 해도 그 두려움을 눈빛으로만 표현할 뿐, 이내 꼬리를 흔들며 연구원을 반긴다고 한다. 실제로 구조한 실험비글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알오롤 냄새가 나는 탈지면을 들이대면, 비글은 그 순간 꿈쩍 않고 인형처럼 앉아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인간에게 친밀함을 표시하는 비글의 습성을 우리 인간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동물실험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해도 지구의 생명체 중 다른 존재에게, 그것도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존재에게 칼을 들이대는 종은 인간밖에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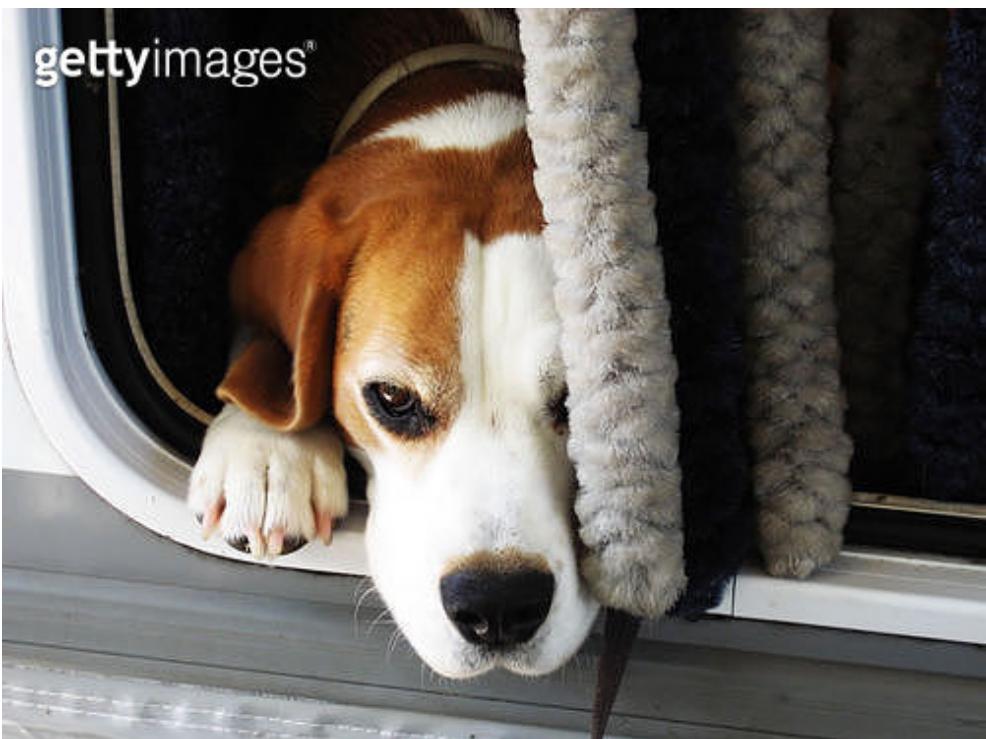
을 것이다.

‘인도적’ 처리? 위령제?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지금까지 실험식에서 구조해온 비글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처음 세상 밖을 나온 비글들은 곁에 사람이 다가가면 꼬리를 흔들기는 한다. 하지만, 막상 얼굴에 손으로 가까이 대면 구렁이처럼 구석으로 가서 몸을 움츠린다. 그들은 사람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 손은 두려운 것이다. 둘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손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의 시선을 피한다는 것이다. 실험실에서 처음 만난 비글들은 절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시선을 피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 길거리에서 구조한 비글들은 처음 보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어댄다. 전형적인 비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도 실험실 비글들이 처음 보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것은 실험자, 즉 연구원들에 의해 길들여진 습관이 아닐까 생각한다. 연구원들도 사람인데, 엄연

히 살아 숨 쉬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을 하면서 그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반대로 애초에 그들을 생명체로 여기지 않는 연구원의 경우에도, 실험대상에 불과한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 시럼을 받으며 굳어진 이런 습관 때문에, 실험실에서 구조해온 비글들은 항상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식의 비글들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나의 존재를 의미하며, 그 존재에게 생명력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그러나 어두운 실험실 속에서 한낱 실험도구로만 인식되는 비글들에게는 이름 대신 고유의 일련번호가 주어진다. 이 일련번호는 “우리는 너희들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실험이 어려워지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즉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다.

동물실험실은 엄청난 ‘고통의 공간’이다. 동물이 실험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과 가장 밀접한 바이오산업계는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려한다. 비글 외에도 마우스(Mouse), 래트(Rat), 기니피그(Guinea Pig) 등 쥐나 토끼, 돼지, 고양이, 원숭이 등 많은 종류의 동물이 실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자연상태에 있던 동물들을 잡아다가 실험을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 대부분의 실험동물들은 ‘동물실험 전문 사육장’에서 길러진다. 실험을 통해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이 유전적 결함이나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실험동물은 대부분 무균 번식장에서 엄격한 관리 하에 생산되고, 실험실로 공급된다.

즉 이들은 애초부터 실험을 위해 태어나 길러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험용’ 비글은 ‘가정용’ 비글보다 훨씬 비싸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비를로 실험을 한 후, 안락사 시키지 않고 다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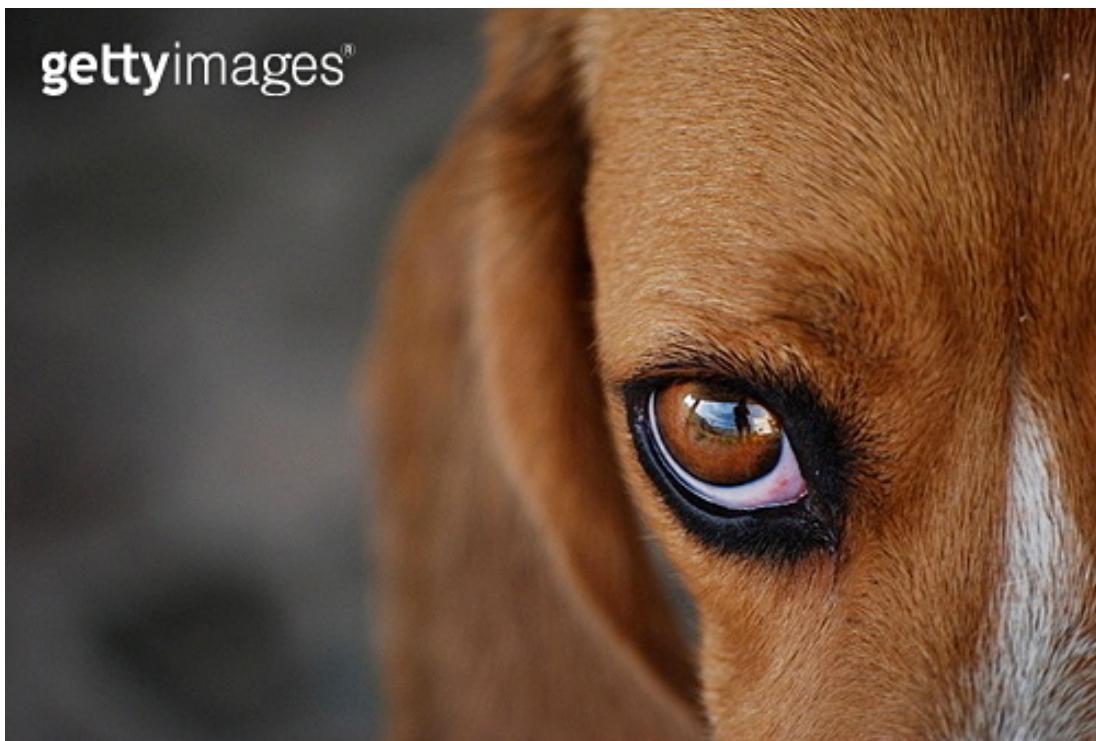


기관으로 다시 보내곤 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수술실습용으로 쓰이던 비글은,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해부실습을 위해 부검대에 오른다, 한마디로 “본전을 뽑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비글들에게는 편안한 죽음, 형체를 유지한 주검마저 허

락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단 한 번의 실험을 마친 직후 안락사 되는 비글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행 실험 동물법에서는 이들의 안락사를 ‘인도적 처리’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400개가 넘는 동물실험기관에서는 매년 ‘실험동물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대체 이 위령제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실로 고통스러운 실험에 희생된 동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인간이 저지른 잔혹하고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변명과 위안을 하기 위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동물실험은 인강이 과학적 행위 중 가장 낙후한 방법이다. 바이오산업은 이제 신의 영역인 생명체를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로 실험을 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는, 이토록 과학이 발달한 오늘이나 한 세기 전이나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 지난 세기 우리 인류가 이뤄온 바이오산업의 수준에 비해, 잔인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수준은 턱도 없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동안 과학계는 눈에 보이는 성과 만을 좋아왔을뿐, 발전 과정에서의 무고한 희생을 줄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해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



는, 그 어떤 논리를 세워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내가 구조하려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동물실험을 하는 이들이나 동물실험을 옹호하는 이들은 주장한다. “동물실험이 잔인하다해도 불가피한 선택이며, 희생된 동물들이 인류를 위해 값진 희생을 한 것이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희생되는 존재가 스스로 원한 것일 때 ‘값진 희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는 가장 우월한 종”이라는 이유 (또는 착각)을 앞세워, 다른 종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을 극단적 이기주의이고 잔인한 폭력일 뿐이며, 이를 합리화하는 것은 우리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편, 고통을 느끼고 존엄성으로 갖춘 생명체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진정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동물실험으로 얻게 될(것이라 생각하는) ‘과학적 데이터’라는 이점은 어디까지나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존재를 존중하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의 고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수단’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목적인 ‘인간성’을 잃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그토록 어려움을 무릅쓰가며 그렇게 열심히 비글들을 구조하느냐고.

그 질문에 대답하자면, 내가 ‘비글’이라는 특정 견종을 좋아해서 라기 보다는, 비글이 ‘실험동물’의 상징, 즉 잔인한 동물실험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비글들을 구조하면서

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떠한 고통을 당해왔으며, 미처 구조되지 못한 대부분의 실험동물들이 어떻게 고통 속에 죽어 가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동물실험에 대해 알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차 비글로 대표되는 실험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무모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비글을 구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다. 비글 구조를 통해, 우리가 잃어가는 인간성을 구조하고 있는 중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

2015년 11월 국내에

설립된 동물보호단체.

미국 ‘비글 프리덤 프로

젝트(Beagle Freedom

Project)의 한국 파트

너로 2016년 7월 부

설 동물보호소를 건립

했다. 주요 활동은 길거리의 실험실에서 고통 받는 비글들의 구조 및 보호 동물실험반대 캠페인, 불법 동물실험에 대한 감시 및 고발 등이다. 동물실험대체 분야의 노벨상 격인 ’러쉬 프라이즈 (Lush Prize)’에 2016년 아시아 최초로 흥보 부문 최종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웹사이트 : www.beaglerescuenetwork.or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roups/BeagleRN/>



“가치를 수집하다”

5개 박물관 탄생을 준비하는 용인일보 조문래 대표

POST



자그마한 액세서리를 모으고, 틴케이스를 모으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굿즈들을 모으는 것을 칭찬받았다. 그리고 이 콜렉팅 DNA에 공부를 더하면 가치를 수집할 수 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 또한 들었다. 짧은 시간 안에 용인의 멋진 박물관 주인이 될 용인일보의 조문래 대표는 가치를 수집하는 능력자다. 그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조 대표. 용인을 사랑하고, 지역민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수십 년 모아 온 그의 보물들을 이제는 세상으로 꺼내보려 한다.

writer _안정미 기자 / photo _조용수 기자



용인일보는 경기도 용인시 중심의 지역 뉴스, 사회, 생활, 부동산 및 문화 소식 등을 전달하는 지역 언론 매체다.

용인의 미래, 용인일보

용인시에 있는 다양한 이슈를 집중 취재하는 지역 언론으로 주민들과 직결된 보도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지역민 의견 반영 등을 통해 함께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뉴스와 정보 전달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 일에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용인일보 조문래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을 위한 큰 꿈을 꾸고 있다.

가치를 수집하다

용인시 안에 시민들을 위한 다섯 가지 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이야기하는 조 대표는 가치를 수집하는 수집가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집해 온 다양한 가치품들을 사회에 환원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꿈꾸는 그는 2~3년 안에 꿈을 현실화 하겠다 다짐하며, 한국 근대 초간본 박물관, 한국 LP 뮤지움 등 박물관으로 탄생할 그의 수집 이야기를 전했다.

‘이름을 남기는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수집 인생은 다양한 분야의 가치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마흔 살 첫 초간본을 시작으로 현재 갑오개혁부터 6.25까지의 한국 근대



초간본을 수집한 조대표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작품들을 끊임없이 찾았던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만 천 권이 넘는다. 한문이 아닌 한글로 창작된 문학과 이들의 창작성, 희귀성, 그리고 보존성에 포커스를 맞춰 조금은 깐깐한 그만의 기준을 세우고 수집에의 가치를 높였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시>, 정지용의 <향수>의 초간본 등 그에게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작품들은 보물이나 다름없는데, 이 역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용인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대표의 꿈은 실로 근사하다.

한국 LP 뮤지움

희귀 LP도 마찬가지로 그의 안목에 들어 귀한 가치를 품고 박물관의 전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그리는 LP 박물관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만한 평범한 박물관이 아니다. 실력 있는 건축가의 상상대로 근사하게 지어질,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며 누구나 찾고 싶은 마음이 들만큼 근사한 박물관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3천 장이 넘는 그의 희귀 LP가 전시될 공간이니 거대하고 특별할 수밖에. 부푼 마음과 철저한 준비로 하루 빨리 시민들과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단다.

수집하는 작품 중 그가 가장 아끼고 귀하다 여기고 있는 윤연선 <평화의 날개>, 양병집, 김두수 등 오래 전 음악가들의 희귀 앨범 모두 조대표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의 바람은 하루빨리 그 멋진 박물관이 설립되는 것을 꿈꾸고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국 선서화 미술관. 불교 수행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그림(서화)로 표현하는, 고승들이 쓴 볏글씨와 같은 귀한 작품들 역시 첨 점 정도 소장하고 있어 선서화 미술관을 마련할 계획이며, 중광스님에 대한 200점의 소장품과 옛 농민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 선비들의 책상이나 결혼할 때의 기러기 장식 등 생활사 박물관 또한 조대표의 계획 중 하나다.

용인시에 살면서 용인에 대한 애정과 지역민들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보물과 같은 소장품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조 대표는 용인시가 전국 특례시 중 하나인데 이렇다 할 박물관 하나 제대로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속상했다. 귀한 소장품들이 있으니 용인시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나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땅 매입부터 차근차근 이뤄왔고, 향후 짧은 시간 안에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한창이다.



수집의 철학

수집이라면 일가견이 있어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 역시 가치를 수집하는 조 대표는 그 철학부터 달랐다. 시작 역시 상당히 달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름을 남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했던 수집이었기에 조 대표는 수집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기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조언한다. 그리고 살짝 겸손 한 스펜 얹어 이야기한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박물관을 꿈꿀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그 마음 하나면 시작은 충분하다 합니다.” 라며 수집의 철학을 전한다.

“하나를 가져도 그 가치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결국 알아야 하는 것, 알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기술이 있었는지. 공부한 만큼 골라내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수집의 기술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요.”

자신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이 함께 하는 그의 수집인생이기에 그가 마련한 박물관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죽음학자를
꿈꾸며 오늘을 가장 소중하게 살아간다
한신대학교 휴먼케어교육원
죽음교육상담학 전공
박지민 대표



그리스어 ‘타나토스(죽음)’에서 유래한 싸나톨로지는 우리말로 임종학, 생사학, 죽음학으로 불린다. 아직은 생소한 싸나톨로지, 즉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서 학문으로서 갖는 역사는 불과 10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일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이 학문을 운명처럼 만난 여성 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이들에게 이 학문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시작했다는 박지민 대표. 선입견 가득 담아보자면, 학문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사한 외모의 그녀에게 의아했다. 그녀가 만난 죽음학, 과연 무엇일까.

writer _안정미 / photo _조용수 기자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오목조목 예쁘면서 귀염성 있는 커다란 이목구비, 화사한 스타일과 미모를 자랑하는 박지민 대표는 죽음학을 공부하고 있다. 약간 언밸런스했다. 해사한 미소로 일반인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예쁘장한 외모여서 선입견을 갖고 봤나보다. 예쁜 것을 보거나 판매하는 일, 혹은 뷰티 관련 일을 할 것만 같다. 그런데 ‘죽음학’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역시 ‘죽음’이라는 단어에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다. 선입견이라니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한 번 다스려본다.

운명처럼 다가온 죽음학

박지민 대표는 올해 초 싸나톨로지스트 임병식 교수를 만나고 운명처럼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만났다. 낯설고 생소했던 죽음학이 왜 운명 같았을까. 학문을 접하면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한 줄의 질문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누군가에겐 어쩌면 그저 그런 질문일 수도, 기분이 나쁜 질문일 수도, 깊게 생각하면 슬퍼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무





주제 발표



대학원 동기들과



한신대학원 오리엔테이션

서워질 수도 있는 질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에게 그 한 줄의 문장은 '오늘을 살게 하는' '명제'다.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큰 뜻 역시 그것일테니, 참 신기하지 않나. 죽음을 이름으로 하는 학문이 오늘을 살게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니 말이다.

20년 이상의 시간을 박지민씨는 뷰티 관련 종사자로 지냈다. 풍기는 이미지와 첫인상에서 예감(선입견)이 아니라고 하고 싶어

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일과 그녀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업종의 특성상 사람의 몸과 연결된 분야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신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기에 일을 하면서 그녀는 에스테틱에서부터 마사지, 마인드 스파, 그리고 대체의학까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접하며 꾸준히 배움의 길을 걸었다. 또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는 서비스업이기에 그녀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심리학, 대화훈련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까지 넓혀갔다. 이렇게 보니 그녀와 죽음학은 정말 운명처럼 만날 수 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람, 사람의 몸에 대한 관심,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결국은 사람 시간의 끝인 '죽음'의 시간까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음학(싸나톨로지)이란

그렇다면 그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죽음학,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싸나톨로지, 즉 죽음학은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죽음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집중하는 학문이다.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은 물론 임종, 죽음교육, 상실, 비탄, 애도, 유가족과 죽음에 관련된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철학을 중심으로 심리학, 의학, 사회학, 종교학 등 여러 학문과 결합된 융합적 연구다. 범우주적인 공포에 휩싸였던 청소년 시절의 기억도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죽기도 전에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에 설득이라도 하듯 죽음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남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돋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실로 병원이나 복지관, 문화센터는 물론 환자나 그의 가족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한다고.

그녀에게 물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고 슬퍼져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녀는 왜 죽음학이 운명 같았나고.

“젊은 시절 참도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젊었는데, 젊음이 없었어요. 저는 늘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버겁게 살아내면서 살고 싶지 않다, 쉬고 싶다, 멈추면 좋겠다,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음을 곧 삶이라 생각하게 돼서 늘 언제 죽어도 아깝지 않다면, 치열한 대한민국을 살았었거든요.”

해사한 미소 뒤에 젊은 시절의 그늘이 있다고 고백하는 박지민 대표는 힘든 시절을 버텨내며 우울감을 느끼는 무거운 삶을 짚어지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동안 없었던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오듯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금 예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꿈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학문이 선물처럼, 운명처럼 다가오는 순간도 맞이할 수 있었다. 자신처럼 죽음을 쉽으로 여기며 삶이라는 시간을 그저 견뎌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텐데, 안타깝던 젊은 날의 박지민 대표와 같은 생각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부, 운명이었다. 그녀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큰 목표로 죽음학을 연구한다.

“기회가 된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하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죽음을 공부해서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보다, 죽음을 공부함으로써 하루, 삶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자는 거죠.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더 잘 알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살면서 경험해야만 하는 죽음 앞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녀는 솟품에 의한 순간적 쾌락과 짧은 감정에 사로잡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르지 못한 감정을 잘 만져줄 수 있는 어른이고 싶다고 전한다. 그녀는 ‘살아있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모두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삶을 채워가기를 바란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감정의 무거움을 안고 가는 길을 선택한 만큼 박지민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죽음학자로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70에 꾸는 꿈을 이야기 하다

액티브 시니어 대표 주자

안종운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우리는 뛰어난 체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퇴직 후에도 사회적으로 왕성한 문화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액티브 시니어라 부른다. 긴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완벽한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 멋진 장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가 있다. 7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하며 한순간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액티브 시니어의 대표주자 안종운 전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났다.

writer _안정미 기자 / photo _조용수 기자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첫발을 내딛고 긴 시간 농림부에서 근무하며 50대에 차관까지 역임한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이하 차관)은 반듯한 공무원의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잠시 일하고,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기에 아마도 단정하고 반듯했던 공직의 모습이 깊이 배어있어 언뜻언뜻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공직을 떠나게 된 것을 ‘1차 은퇴’라 한다면 벌써 18년째. 솔직히 은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치열하게 지냈다는 안차관은 최근 어느 신문에서 언급한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행시17회’의 주인공이다. 그 만큼 일에 몰두해 온 세대인 것이다.



열 살 하이디와 함께

알프스에 가다

연동운 지음

미란디아어글작소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기에 안차관은 처음 공직을 떠났을 때는 허전하고 어색했다. 그러나 은퇴 후 주춤하기보다는 “앞으로 또 30년이 남았구나.”라 마음으로 대학 강의와 슬로푸드 운동,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 농업정책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다. 그렇게 쉼 없이 열심히 달려온 그의 70인생이다. 그리고 지금. 안 차관은 건강을 돌보며 고향과 사회에 재능기부를 하며 이제야 온전한 ‘쉼’을 허락하여 삶을 즐기고 있다.

여유, 그리고 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보다 자신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왔다는 안차관은 현재 그의 고향 장흥에서 ‘장흥학당’을 운영하며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전국의 훌륭한 강사와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골 학당의 ‘당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사회가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 기꺼이 가서 함께하자.”라는 목표로 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과 더불어 공익을 위한 다양한 일에 아낌없이 함께 하고자 한다. 치열하고 바쁘게만 살아왔던 그에게 드디어 여유가 주어졌기에 가능했을까. 그가 말하는 은



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여유’가 맞았다.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은퇴자의 숙제죠.

저는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여행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며 마음의 여유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컨설팅도 이런 여행 욕구와 맞닿아 있었죠. 하이라이트는 10살 손녀와의 알프스 여행이었습니다. 그 감동을 책으로 펴낼 만큼 인생의 큰 행복 이었습니다. 둘째는 사진입니다. 여행과 사진은 빼려야 뗄 수 없는 짝이지요. 자연이 준 풍경과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담으며 또 다른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탁월한 소셜 네트워크 능력

벌써 두 권의 여행 에세이를 쓴 안차관은 은퇴 후 블로그에 매일 글을 조금씩 적는 것으로 그렇게 작가(전문 작가는 아니지만)의 삶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컴퓨터로 일을 하던 세대가 아니었기에 블로그와 같은 SNS는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 같았지만, 그는 그런 이유로 더욱 흥미로웠고 글과 사진이 취미가 된 덕분에 자연 스럽게 SNS와도 친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일기처럼 간단하게 적어보고 찍은 사진을 설명하던 것이 차츰 스토리에 스토리가 연결

되며, 기술에 기술이 얹어져 그의 소셜 네트워크 범위는 더욱 커져만 갔다.

“사진을 정리, 편집하려면 컴퓨터와 앱을 더욱 익혀야 하고, 좋은 사진을 찍으면 자랑하고 싶어 SNS에 올리게 됩니다. 여행의 감동과 사람들의 이야기, 풍경과 먹을거리 등을 나누다 보니 블로그는 물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친숙해졌습니다. 덕분에 소통의 범위가 무한히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ChatGPT와의 대화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제 기계와의 대화 법을 터득해야 생존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젊은 세대 부럽지 않은 소통 능력을 보유한 안차관은 트렌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그 누구보다 크다. 그가 말한 ‘여유’가 느껴지는 그의 세련된 지금 시간에, 딱 어울리는 조금은 촌스런 문장이 떠오른다. 맞다, 인생은 60 아니 70부터다.

은퇴 후 또 다른 30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산책과 등산, 골프가 취미인 그의 70대는 참 건강하다. 3, 40대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10대 손주들과 견주어도 건강에 있어서는 1등이라고 자부하는 안차관이다. 그만큼 운동에는 자신있

다. 아침 산책이 최고의 운동이자 건강 비법이라 말하는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한강을 걷는다. 게다가 일주일에 2~3회는 관악산이나 청계산을 오른다. 안차관처럼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고교 동창, 옛 직장 동료들과도 함께 산행하지만 혼자서도 즐길 만큼 등산은 안차관의 삶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참 건강하다.

안 차관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여유로운 노년의 삶은 과연 모두에게 허락될까? 아닐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의 대표 주자와 같은 안차관의 시간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특별해 보인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의 실행력이 아마도 그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직업을 갖기 위해 16~20년을 학업에 투자하고, 그 기반 위에서 30여 년을 일합니다. 그 소중한 30년을 마친 후 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은퇴 후 또 다른 30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앞선 30년보다 더 귀한 후반 30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투자해야 100세 시대에 활기차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꿈

안차관은 제2의 은퇴를 앞둔 나이라 꿈이라는 말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인간관계가 점차 얇어지고 소통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싶다고. 오래전부터 ‘주역’ ‘도덕경’ ‘장자’ 등 동양철학 고전에 큰 관심을 가져온 그는 “고전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관계를 되살리는 지혜를 찾아 후손들이 AI와 같은 기계와의 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줄이는 데 작은 단서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라며 들뜬 꿈을 전한다.



수십 년의 사회 경험과 지혜를 담은 그의 꿈은 그였기에 꿀 수 있는 귀한 꿈이다. 70년의 시간을 지나 앞으로 더욱 반짝반짝 빛날 안종운의 시간들이 남아있기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후배로서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그에게 ‘꿈’이라는 말은 결코 어색하지 않다.



“장수사진 찍고 오래 살자”
행복한 인생 샷을 찍는 사진작가
Kunst Studio 강경석 대표

Kunst Studio 강경석 대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수사진을 찍은 사진작가이다. 그의 따뜻한 작업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자꾸 고였다. 슬픈 일이 아닌 게 분명한데, 왜 그랬을까. 그의 장수사진 속에는 고운 어르신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을 것이고, 그 작품을 만든 강 작가의 추억에는 아련함과 따스함이 공존하기에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중년의 남자인데 ‘참 예쁘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깊게 패인 주름도, 세월 속 거무스름해진 피부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시켜주는 장수사진의 대가 강경석 작가가 궁금해졌다.

writer _안정미 기자 / photo _조용수 기자

사진은 운명이었을까

강경석 작가의 첫 사진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좋은 사진을 좋은 생각으로 찍는 일을 하는 작가인 만큼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았는데, 생각처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곤조곤 재미있게 이야기 하는 강경적 작가의 말 솜씨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심심한 드라마 하나 보는 것 같긴 했다. 재미있다.



강 작가와 사진을 운명이라는 거창한 말로 표현하기엔 조금 부족했다. 오래전부터 사진기를 갖고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사진이 운명처럼 좋았다는 그림 그리기와 같은 분야에 재능이 없었기에 더 사진기에 의지하다 보니 어느새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고. 함께 사진을 좋아하던 친구들과 사진학과에 진학하며 본격적인 사진을 시작하게 됐다. 졸업 후 친구들은 신문사나 잡지사에 사진기자, 사진작가로 취업을 하던데, 강 작가에게는 쉽지 않았나 보다. 결국 ‘사진’을 업으로 하는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진 못했지만 건설회사의 홍보팀으로 입사해 사진과의 연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다.

젊은 시절 해외 파견을 자처하는 등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힘들게 건설회사 홍보팀 일을 해 돈도 많이 벌었다. 이후 카이스트의 기술 조교를 하며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기도 하고 돈도 더 벌 수

있는 기회로 몇 년을 보냈지만 그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었기에 약간의 갈증이 있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강 작가는 드디어 30대 중반에 대전일보 경력 사진기사로 활동하면서 전공을 살려 원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났다. 8년간 대전일보에서 경력을 쌓은 그에게 이제, 사진은 단순한 ‘업’이 아닌 ‘삶’이 돼 갔다. 강 작가의 사진 인생은 그 후 농협중앙회 사진을 전담하면서부터 더욱 빛을 발했다. 서울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게 되며 홍보, 행사 사진 촬영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회장 전담 사진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장수사진 찍고 더 오래 살자

그렇게 지내던 중 농협의 지역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시골의 조합장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 500여 개 지역농협과의 협업으로 수많은 어르신의 장수사진을 촬영해 왔다. 1년에 5천여 명 조합장들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 강작가는 ‘영정사진’이라는 말이 늘 조심스러웠다. 만 65 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아무리 시골에서는 그들을 노인이라 부른다 해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거슬렸다. 이에 강작가는 ‘영정사진’을 ‘장수사진’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장수사진. 단어 하나 바꾸니 사진의 의미, 느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강작가는 40대에 시작한 이 일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장수사진을 촬영한 작가로 알려졌다. 10만 명. 강작가가 20여 년 동안 촬영한 장수사진의 주인공의 수다. 말이 10만 명이지 실제로 엄청난 수가 아닌가. 강작가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으며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사진을 찍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증명 사진이나 초상화 같은 사진이 아닌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그런 사진. 10년은 젊어 보이게 활기찬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애교도 부리고, 개그도 해 가면서 어르신들의 표



로필 사진 느낌으로요. 영정사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장수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때 가장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좋은 사진 찍고 간직하면서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작업은 어르신들의 인생과 웃음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둔다. 나이든 분들의 인생을 기리거나,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 촬영하는 의미 있는 사진 작업이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 덕분에 어르신들은 인생샷을 건지는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장수사진에는 강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가 원하는 어르신들의 사진 포인트는 스마일이다. 활짝 웃는 모습, 예쁘게 미소 짓는 사진이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있으랴.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주고자 하는 강작가의 마음 따라 어르신들의 프로필 사진이 탄생한다. 소위 ‘뽀샵’이라 말하는 포토샵 작업도 조금씩 하면서 열 살은 어리게 보일 수 있도록 찍은 사진을 잘 어루만져, 어르신들에게 예쁜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너무 많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남는 분도 계실까 문득 궁금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꽤 있다는 강 작가는 가장 마음에 남았던 할머니의 말이 있다며 잠시 추억에 잠겼다. 언제부턴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헤어, 메이크업 지원까지 함께 하면서 인생샷을 찍어드리기도 하다 보니 곱게 단장하며 신기해하던 할



머니의 말이 항상 떠오른다고.

“그 옛날 시집 갈 때 입술 한번 발라보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또 한 번 발라보게 되네.”라며 방긋 웃으며 이야기하던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병상에 계시던 어머니를 직접 간병해 왔던 강 작가라서 그 할머니의 말이 잊혀지지 않은 듯 보였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다정히 대했을 강작가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다.

자녀들이 간직해주길

강 작가는 장수사진을 찍으며 한 가지 바람이 생겼다.

“제가 잘 찍어드린 이 사진을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간직해주면 참 좋겠어요. 옛날 시골 집들에 가보면 벽
마다 왜 사진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걸어두고, 자랑스러운 자식들, 사랑스러운
손주들 사진들이 여기 저거 걸려 있곤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 친척들 집만 봐도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에요. 나의 엄
마 아빠의 사진인거잖아요. 가장 곱고 건강하게 찍은
부모님의 모습을 꼭 간직해서 집에서 늘 기억하고 바
라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장수사진을 찍어 드리면 사진을 받아보고 너무 고맙다
인사를 전해주는 분들도 소중하지만, 자녀들이 사진을
추가 요청할 때 매우 귀하고 더 보람을 느낀다는 강작가.
처음은 어르신들을 위한 작업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강작가 자신을 위한 일과 같다. 그
런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작업이기에 강작가의 장수
사진 촬영은 앞으로도 더욱 빛날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
록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예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
다.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사진
작가 강경석’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K-SEAFOOD, 더 큰 시장을 향해”

수산물 수출 강소기업 (주)리안물산 조재훈 대표,



중국의 값싼 수산물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산물을 비싸게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이제, 어쩌면 가졌을지도 모를 당신의 오해와 편견이 불식되어야 한다. 폭발적 경제성장을 일군 중국은 이미 세계 수산물 유통계의 큰 손이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던 생선들이 어느 순간 귀해지고 비싸진 것도 14억 인구가 내뿜는 중국의 수산물 소비 열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해외 시장을 겨냥한 K-SEAFOOD 관점에서는 더 큰 기회가 열린 것이다.

writer _유성욱 기자 / photo _조용수 기자



전라남도 영광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주)리안물산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공장의 커다란 냉동창고 앞에 주차된 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 2대였다. 지게차가 수산물 박스를싣고 냉동창고와 컨테이너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컨테이너 하나에 약 20톤의 수산물이 실린다고 한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 폭증이 우리 밥상까지 바꿔

수산물 상자에 중국어와 함께 영어로 병기된 라벨이 보인다. 그런데 수산물을 하차하는 게 아니었다. 컨테이너에 실어 올리는 것이었다. 중국산 수산물 수입 이야기만 듣던 사람에게는 낯설게 여겨지는 장면이다.

“지난해 8월 설립돼 올 6월에야 공장에 해썹(HACCP)시설을 갖추고 인증을 완료한 신생사지만, 연말까지 약 150억원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량 가까운 물량이 수출입니다.”

회사를 안내하는 안승순 상무는 최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했다. 지금은 자신이 컨설팅하던 회사에서 검역과 통관, 관세 신고, 원산지 증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비록 지방 산단에 몸담고 있지만 K-SEAFOOD 수출의 역꾼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

“주로 군산항, 인천항, 평택항을 통해서 중국 각지로 수출하는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부세나 덕자는 항공편으로도 많이 보냅니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수산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한국 수산물이 깨끗하고 우수하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리안물산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수산물을 수출한다. 민어, 부세, 덕자, 병어, 갈치, 갑오징어 등 고급 어종이 특히 인기다. 실제로 한동안 서민의 생선으로 취급받던 부세나 병어의 가격이 급증한데는 국내에서의 어획량 저하와 더불어 중국발 수요급증에 기인한 바 크다. 중국인들의 선호로 한 상자에 수백만원 대로 가격이 치솟음에도 물량이 없어 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한국과 중국 수산물 어획 및 유통 현황에 정통

수산물 유통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리안물산 조재훈 대표를 만났다. 수산물 유통경력만 20년, 국내의 경우 동해에서 남해 서해까지 계절별 어종과 조업상황을 꿰뚫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보하이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수산물 생산현황과 주요 어시장 수산물 시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그때그때 점검한다고 한다.



“한국의 수산물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중국의 소비수준이 올라가며 참치부터 킹크랩까지 전세계 고급 수산물을 빨아들이듯이 수입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지요. 그런데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다 보니까, 갈수록 연근해의 수산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지요. 이에 중국 당국은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연근해 모든 어종에 대해 금어기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요. 때문에 금어기 기간이나 춘제 등 중국 명절기간에 수산물 가격이 더욱 치솟으며, 선호 어종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동 조기가 하여 우리가 선호하는 참조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던 부세조기가 더 귀하고 비싸진 것도 전적으로 중국인들의 선호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춘제(春節) 때 부세를 먹으면 복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 황금빛이 도는 부세가 금을 상징한다고 해서 귀하게 대접받는데, 최근에는 잔치상에도 부세가 없으면 모양 빠지는 일로 여겨진다고 한다. 자연산 어획만으로 충당할 수 없으니, 세계 최고의 부세 양식 기술로 수요를 대체하기도 한다. 식료품

“제가 비록 젊은 나이이기는 하지만, 20년 동안 현장에 몸담으며 어느 누구 못지 않게 국내 및 중국의 어획 현황과 수산물 유통구조에 밝다고 자신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같은

시장이고 ‘속도’와 ‘경비’싸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산물의 경쟁력도 바로 거기로부터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의 연근해는 이미 황폐화해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려면 10~15일은 항해를 해야합니다. 운반선이 따로 있어 조업한 수산물을 실어나르는데 또 일주일이 소비됩니다. 한국은 연근해 유자망의 경우 조업과 운반이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생선의 선도를 비롯해 모든 경쟁력에서 앞설 수밖에 없지요. 저는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수산물의 해외 수출 전망이 계속해서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업의 미래가 그의 발걸음에

리안물산 조재훈 대표는 패기와 자신감이 넘쳐보였다. 알고보니 젊기도 했다. 1977년생 아직 40대의 나이다. 아들만 셋, 큰 아들 예주는 이제 12살, 둘째 병준과 막내 아론은 아직 초등학교 취학 전이다. 지금은 귀화해서 한국인으로 살지만, 출생은 중국에서 했다.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에는 8개 시가 속해 있는데, 그는 둔화(敦化)시에서 태어났다.

“4녀 1남 중 막내입니다. 누님이 4분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어준 분들입니다. 제가 베이징의 대학에서 호텔경영 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셋째 누나 덕분이구요. 지금 누님들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군산... 저는



“
한국과 중국은 이미 같은 시장이고
‘속도’와 ‘경비’싸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산물의 경쟁력도 바로
거기로부터 좌우됩니다.
”

목포에 살고 있으니 정말 전국구 가족이네요~”

한국에 처음 온 것은 지난 2002년 4월이다. 가구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2년을 근무했다. 조화를 수입하는 회사에서도 1년 반을 일했다. 그러다 2005년 천직을 만난다. 수산물을 수입하는 회사였다. 냉동 아구 수입문제로 부산에 출장을 많이 갔다. 2010년 거래하던 수산회사가 부도났다. 이미 수산물 유통 업무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그에게 손길을 내밀었고, 젊고 패기있던 그는 운명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수완으로 콘테이너 10개 분량의 봉장어를 수출하며, 회사를 한숨돌리게 해놓고 더욱 수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 시장이 처음으로 열릴 무렵 그가 누구보다 먼저 그 최일선에 있었다. 지난 2019년 조 대표는 수산물 중계 및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주)해나루를 설립한다.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동종의 업을 하는 몇 개사가 있지만, 자체 공장을 보유한 회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합니다. 당시에도 수산물 수출은 ‘속도’와 ‘경비’싸움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자체 공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체 공장은 조대표가 가진 자신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동종업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꿈은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



“중국시장도 충분히 더 넓힐만큼 크지만, 미주 지역으로의 수출과 내수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에서의 미국 직수출이 어려워진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진 한중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파워와 함께 자체 가공공장을 통해 수산물을 필렛 등의 형태로 가공해서 미국 및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곳 영광의 산업단지에 최신 공장을 지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목포의 보세 창고도 더욱 크게 확장하려고 합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자신의 꿈을 일구어가는 조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대단한 사업가’라고 생각하려는 찰라, 더 큰 비전을 듣게 됐다.

“그런데 제 목표의 최종점은 양식사업입니다. 어종도 머릿속에 있는데, 아마도 한국과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부세와 새우가 될 것입니다. 중국산 양식 부세보다도 경쟁력을 갖출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산물 유통 및 수출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프론티어 중 한명으로 그를 꼽았는데, 인터뷰를 마칠 무렵, 어쩌면 그가 우리 수산업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다방과 DJ

DJ 어원은 Disk와 Jockey의 약자 (음반) (말을 타는 기수)

차곡차곡 한 켠에 LP판들이 서로의 차례를 기다리고, DJ는 리퀘스트 뮤직의 사연들을 읽어가며 음악을 들려주던 음악다방이라는 문화는 정치적이던 문화적이던 한때 우리들에게 익숙했었지만 지금은 그저 추억으로만 남는 ‘기억’이 되어 버렸다.

writer _조대안 기자 / photo _서울신문 DB

1895년 을미사변으로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관에 피신해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여기서 고종의 시중을 들던 독일계 여성 ‘손탁’이 중구 정동 29번지의 왕실 소유의 땅 184평을 하사 받아 손탁호텔을 세우고 1902년 이곳에 ‘정동구락부’를 열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판 다방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방은 지난 1952년에 문을 연 전주의 ‘삼양다방’과 경상남도 진해의 ‘흑백다방’이다.

커피와 음악다방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60~70년대에 들어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다. 그 와중에 음악다방도 새로운 문화의 장소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50년대 말 명동에 위치한 음악다방 ‘은하수’, ‘명보다방’, ‘돌체’ 등은 젊은이들을 위한 자리로 유명했었다. 그리고 60년대로 접어들면서 ‘디쉐네’, ‘메트로’, ‘시보네’ 등도 명소로 자리 잡아 갔다. 이 시기를 통하여 최동욱, 이종환, 김인권, 박광희, 원종관, 조용호, 이백천, 이선권, 박원웅 등이 DJ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후일 방송사가 생기면서 이들은 각각 프로듀서나 방송 DJ로 자리를 옮겼다. 그만큼 그들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증거다. 어쨌든 이런 음악다방을 중심으로 커피는 젊은이들의 문화의 기호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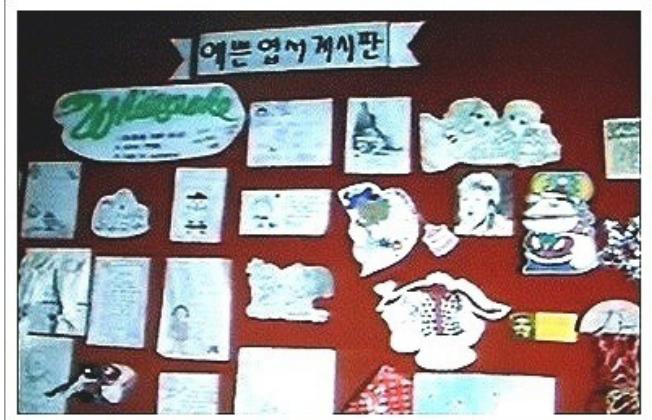
로 정착되었다. 특히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LP판, 장발, 미니스커트, 고고, 디스코, 팝송과 더불어 커피는 더욱 빠른 속도로 번져갔다.

서울의 수많았던 음악다방들

70~80년대 음악다방을 한 번 살펴보자. 1970년대 초 커피 값은 60원이었다. 아마 자장면 가격도 이 정도였을 것이다. 음악다방은 마땅히 갈 곳 없고 호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았던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다. 장발이 유행하던 그 시절, 뒷주머니에 도끼 빗을 넣고 다니며 거울 앞에서 뽐내며 머리를 빗는 DJ의 모습 또한 참 익숙한 풍경이었다.

1970년대의 대표적인 음악다방으로는 종로 1가의 ‘희다방’, ‘향원’ 동숭동 대학로에는 ‘슈만과 클라라’, ‘학림다방’, ‘참스다방’, ‘대학다방’이 있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음악다방은 종로

의 ‘무아다방’, ‘청궁다방’, ‘엘파소’, ‘호다방’, ‘양지다방’, ‘성전다방’, ‘돌체다방’, ‘약속다방’, ‘솔다방’, ‘희다방’, ‘돌고래다방’, ‘원양다방’, ‘타임다방’, ‘세시봉다방’, ‘국일다방’, ‘초우다방’, ‘황제다방’ 그리고 명동, 을지로에는 ‘꽃다방’, ‘호수다방’, ‘청자다방’, ‘설파다방’, ‘가로등다방’, ‘영화다방’, ‘챔피온다방’, ‘카네기다방’ 등이 있었다.



서대문, 신촌의 '독수리다방', '빌보드', '파리다방', '상록수다방', '성지다방', '참피온다방', '노라노다방', '타임다방' 고대 앞에는 '보성다방', '서브웨이' 경희대 입구에는 '궁다방', '상원다방' 신당동의 '너와나', '주희다방' 화양리의 '매킨토시', '타임다방'이 있었고 동대문인근에는 '못잊어다방', '돌체다방', '선구자다방', '수산다방', '청자다방', '산울림', '금성다방', '동궁다방', '역마차', '청춘스케치' 등이 있었고, 청량리에는 '남지다방', '지하철다방', '동산다방' 왕십리에는 '축제다방', '돌체다방', '약속다방', '불새다방' 영등포 지역에는 '꽃샘다방', '약속다방', '종점다방' 그리고 강남 신사동에는 '영일다방', '타임다방', '로마의 휴일'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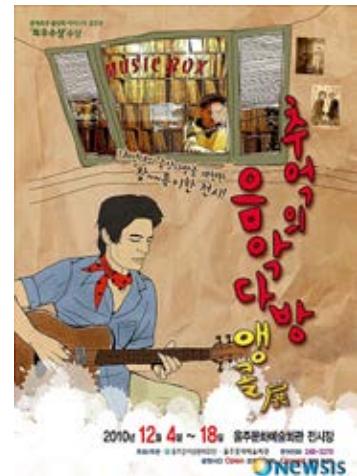


그들이 여기에 모이는 이유

그렇다면 이런 음악다방을 출입했던 당시의 젊은이들은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까? 1970년대는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대한민국은 급속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치를 비롯한 문화 예술은 여전히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박정희 독재정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저항은 끊임없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사랑일변도의 가요 가사가 어딘지 모르게 저항운동으로 변하고, 화가들의 그림이 그렇고 시인과 소설가들의 작품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지배자의 표현으로는 이들이 저속, 저질로 보였지만, 아무튼 거대한 권력적 자본주의의 수레바퀴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이 바로 음악다방이었고, 젊은이들로 시작된 밑으로부터의 작은 반란이었다.

중앙대학교 74학번인 김효영씨는 당시 대학로의 '슈만과 클라라'라는 음악다방을 자주 들렀는데 그 이유는 "우선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이른바 386세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저희 선배들은 그래도 미미하지만 반향을 했어요. 그곳이 정치이던 사회이던, 그러나 우리세대는 마냥 침묵만을 강요 받았지요. 우리 역시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고. 군대, 이성, 장래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은 최소한

나와는 너무 생경스러운 곳이고, 그래서 낮에 가장 가기 쉽고 내가 즐기는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자주 그런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이런 이유가 전부는 아니다. 음악다방 나름대로의 낭만도 있었고 러브스토리도 있었다. 그 중심에는 DJ가 있었다. DJ의 어원은 Disk(음반)와 Jockey(말을 타는 기수)의 약자로 말(馬)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수처럼 Disk(음반)를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DJ는 뮤직박스 안에서 날씨와 계절, 분위기에 맞는 선곡을 하고 음악적인 주제와 화제의 멘트를 하는데, 주로 고객의 신청곡과 사연들을 위주로 방송을 했다. 가난한 연인들이 이곳을 찾아 그들만의 사연이 담긴 음악을 듣고, 혹은 군대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은 ‘꺼이꺼이’ 쓰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서 애창곡을 신청했고, 실연한 여대생은 마냥 눈물지우며 음악을 신청했다. 아무튼 당시 음악다방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휴식처였다. 일상의 피로에 지치고, 고향을 떠나온 외로움 .또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DJ는 신청곡과 사연을 전하며, 힘과 용기, 그리고 위안을 준 아름다운 메신저였다.

그리고 사라진 음악다방

이렇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의 대학가와 중심가에 유행처럼 번진 음악다방도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바로 86년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때문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에 새롭게 시작된 컬러 TV방송과 프로 스포츠의 열기와 각 가정의 오디오 보급과 다양한 여가문화(노래방, 게임방 등)의 출현으로 젊은이들의 시선이 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이유보다는 문화적 정치적 이유도 큰 몫을 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 있었다. 6~70년대의 젊은이보다 그들은 물질적 풍부함을 떠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

주화를 경험했고 자유가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성장의 이면을 헤집고 들어가다 보면 아직도 정치적 문화적 부패와 비민주화를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만 6~70년대에 비교하면 하늘과 땅차이라는 것이다. 통일문화재단의 서기원 목사(71세)는 이런 현상에 대해 “폴란드는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다른 중동부 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활발하게 자유 민주주의 민족저항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1956년 포즈나인 봉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1968년 학생운동. 특히 1989년 폴란드 국민들의 대공산 정부와 대 소련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은 폴란드 사회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소련의 중, 동부 유럽 지배체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도 자유민주화 운동과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은 우리 사회를 180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음악다방이라는 문화는 정치적이던 문화적이던 한때 우리들에게 익숙했었지만 지금은 그저 추억으로만 남는 ‘기억’이 되어 버렸다.

아련함을 싣고 떠나는 추억으로 가는 기차 경춘선

1970년대 젊은 청춘들은 청바지에 기타 메고 청량리 역에서 경춘선을 탔다. 비록 고래가 살고 있는 동해 바다는 아니었지만 조개껍질 묶어 그녀에 목에 걸고, 뚜아에무아와 라나에로스포 그리고 투인 폴리오의 노래를 열창했다.

writer _조용수 기자 / photo _서울신문 DB

지난 2010년 12월 20일 11시 40분 청량리 발 춘천행 무궁화호 1873호가 남춘천역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열차 안엔 아쉬움을 가득 담은 기관사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경춘선을 사랑해주신 승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71년을 달려온 열차가 정차합니다" 이렇게 60~70년대 젊은이들의 낭만과 그리움을 싣고 달리던 경춘선 단선철도는 막을 내렸다.

71년을 달려온 경춘선의 마지막 날

경춘선은 1939년 7월 25일 사설인 경춘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성동역(城東驛)~춘천 사이의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서울의 시가지 확장에 따라 성동역~성북역 구간은 철거되고, 성북역을 기점으로 하는 단선철도가 되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의 마지막 열차가 폐지되고,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었다. 현재 서울에서 춘천 81.3km를 잇는 경춘선 복선전철은 상봉에서 출발하여, 퇴계원, 마석, 가평, 남춘천역 등을 거쳐 춘천역까지 운행되고 있다.



“
60~70년대 당시에는 기차 안에서 담배피우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에 가무까지 허용되던 시절이었다.
또 이런 행동과 모습에 대해
누구 하나 뭐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젊은이들은 토요일 오후 석유버너 혹은 고체연료 그리고 코펠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냄비도 괜찮았다. 경춘선을 탄다는 설렘이 있었기에. 이렇듯 이런 저런 취사도구를 들고 청량리 역 시계탑에 모였었다. 지금이야 없어진 교련복에 청바지, 아니면 검정색 물들인 군복바지, 신발은 운동화였지만 군화도 참 많이 신고 나타났었다. 여자들이야 남자와 달리 신경을 썼지만 그래도 백보 오십보였다 물론 교련복이나 군화는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은 기타였다.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기차 안에서 담배피우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에 가무까지 허용되던 시절이었다. 또 이런 행동과 모습에 대해 누구 하나 뭐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

MT의 정석

청량리에 출발하면 청평과 대성리, 그리고 강촌에서 대부분 하차했다. 물론 춘천도 그렇지만 청평, 대성리, 강촌에 가장 많은 민박과 MT장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78년 당시 명지전문



대 디자인과에 재학 중이던 김진(55세)씨는 “우리과는 여학생이 40여 명, 남학생은 6명이었는데 79년 2월 MT를 갔어요. 장소는 강촌 인근의 새터별장이라는 곳에서 3박 4일을 보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우리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도 몇몇 왔었는데 지금과 비교해보면 MT장소의 환경이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젊었기에 마냥 신나고 즐거웠어요. 특히 당시만 해도 여학생들의 외박이나 음주 등은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서 더더욱 여학생들이 좋아한 것 같아요”라며 그때를 회상했다.

자금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조혜란씨는 “저는 명동에 있는 계성여고를 다녔어요. 고2 때 걸스카우트 대원이었던 저는 대성리





여학생풀장으로 MT를 갔는데 첫날밤 맹장으로 구급차에 실려 다시 서울로 온 적이 있어 경춘선, 대성리, 여학생풀장은 평생 못 잊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학생풀장은 있나요?”라고 깔깔거렸다. 그러나 경춘선은 결코 학생들만의 낭만은 아니었다. 경춘선의 지리상 많은 군인들이 이용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이나 귀대 하던 군인들 모두가 경춘선을 이용했다. 그리고 20~30대 직장 인들도 경춘선에서 낭만을 즐겼다. 특히 휴가 때 제일 많이 이용 했었다. 청바지에 기타 메고 비록 바다는 아니었지만 조개껍질 묶어 그녀에 목에 걸고, 뚜아에무아와 라나에로스포 그리고 송 창식을 그리워했었다.

전쟁과 경춘선

하지만 이런 낭만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지난 1969년 8월 18 일자 동아일보의 ‘힘겨워 주저앉은 피서열차’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날 경춘선 막차인 812 열차는 춘천을 떠나 가평에서 이미 만원이 됐으나 청평에서 오백여명의 승객이 밀어 닦쳐 초만원이 된데다 또다시 대성리 역에서 피서객을 태워 대성리~마석사이 터널근처 고빗길을 오르지 못했다. 이 열차는 고빗 길에서 일단퇴행, 다시 고빗길을 넘으려고 세번이나 올라갔으나 번번이 실패, 만원열차에 탄 승객들은 숨이 막히는 더위에 겹쳐 열차가 달리지 못하자 고함을 지르는 등 차안은 한때 큰 혼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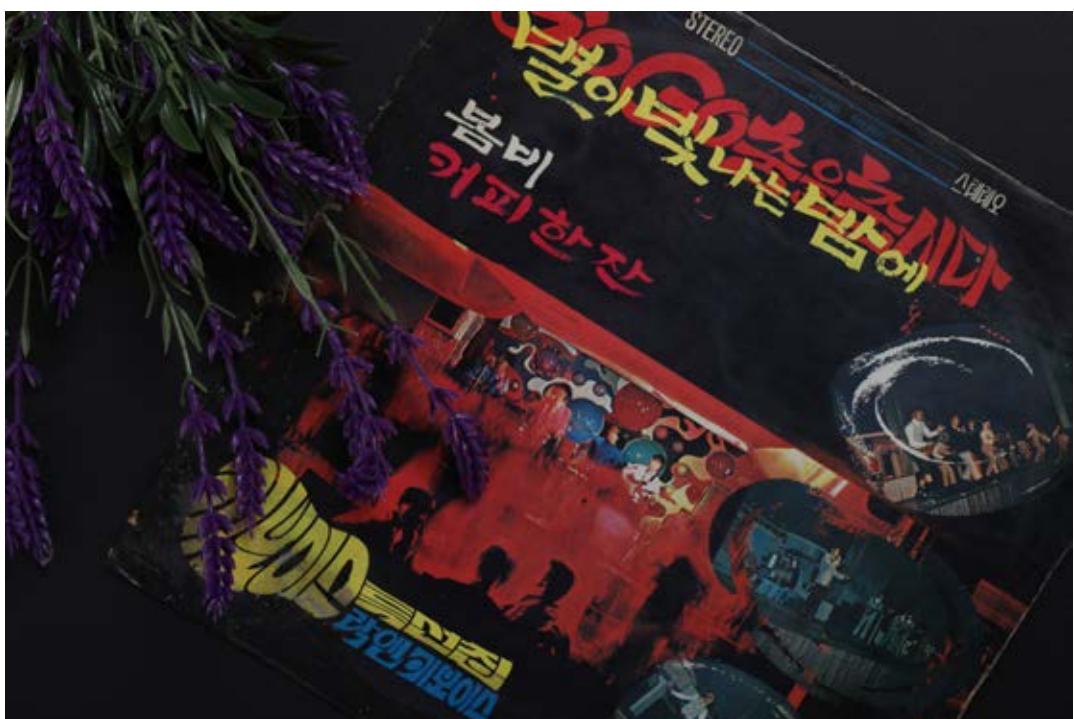
이루기도 했다”라고.

그러나 경춘선의 가장 큰 아픔은 전쟁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1937년 7월 개통된 경춘선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고통인 한국전쟁을 고스란히 겪었다. 수많은 군인과 탄약이 이 경춘선을 통해 전쟁터로 옮겨졌다. 그리고 포성이 멈추고 전쟁에서 벗어나나 싶었을 때 베트남 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뤄졌던 해외 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 역시 경춘선은 함께했다. 오음리 골짜기에서 훈련을 마친 젊은이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을 예견한 듯 경춘선 열차 밖으로 편지와 돈을 묶어 내던졌다. 돈은 가지되 편지만은 고향으로 꼭 부쳐달라는 그들의 마지막이고 처절했던 부탁이었다.

어쨌든 선발대가 예약해 놓은 허름한 민박집에 여장을 풀고, 석양이 지면 곧바로 음주와 대화로 들어간다. 물론 그러한 시간은 대부분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오고 갔던 수많은 ‘우리들의 대화’는 이젠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지만 청량리역 인근만 가도 경춘선의 아리아리한 기억이 남는 것은 우리 모두의 추억일 것이다.



키브라더스 - 별이 빛나는 밤에



키보이스 출신 윤향기가 결성한 그룹사운드 '키브라더스'의 데뷔 앨범으로 1971년 유니버설레코드가 발매했다. 초반은 <키보이스 특선집 락엔키보이스>로 발표했지만 재반, 3반을 거쳐 4반이 되어서야 <키브라더스>로 이름을 수정해 발매했다.

writer _조대안 희귀음반콜렉터 /photo _조용수 기자

키보이스는 1968년 리더인 기타리스트 김홍탁이 히파이브(He5)를 만들어 탈퇴하면서 거의 해체 상태였다. 드러머 윤향기는 키보이스가 미8군 무대에 설 때 밴드명이던 락앤키(Lock & Key)란 이름으로 공연단을 만들어 월남 위문공연을 떠났다. 그가 월남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코끼리 브라더스' 출신의 조영조와 장영을 주축으로 한 2기 키보이스가 인기리에 활약하고 있었다. 이에 윤향기가 1970년에 새롭게 만든 밴드가 바로 <키브라더스>다.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단 다섯 곡만을 담고 있는 이 음반은 네 곡이 커버곡(한 곡은 번안곡)인데, 신중현의 곡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봄비」, 「님은 먼 곳에」, 「커피 한잔」은 키브라더스의 개성과 어우러지면서 완전히 다른 곡이 되었다. 윤향기의 편곡은 자유분방함 그 자체를 보여준다. 그 최고점은 타이틀곡 「고고춤을 춤시다」와 「커피 한잔」에서 나타나는데, 싸이키델릭록과 산타나식 라틴 그루브가 강렬하게 결합된 뛰어난 연주로, 노래보다 오리지날을 압도하는 편곡과 연주로 경탄을 자아낸다. 아예 닐바나 실황 녹음이 아닐까 싶게 편곡이 이채롭고 즉흥적인 접근법도 뛰어나다. 「고고춤을 춤시다」에서는 산타나의 「Evil Ways」와





키브라더즈 LP 앞 면

『Jingo』에 “봄이 왔네 봄이 와 슛처녀의 가슴에도…”라는 민요로 이어지는 10분간의 메들리는 단순히 외국 곡을 카피한 단계를 넘어, 독창적인 해석과 원곡을 뛰어넘는 실험적인 편곡으로 듣는 이를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든다.

이 앨범에서 대중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은 「별이 빛나는 밤에」다. 이 곡으로 키 브라더스는 고고클럽을 넘어서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획득하게 되었지만, 드러머였던 키 보이스 시절과 달리 리드 보컬이자 리더인 윤항기의 대표곡이 되었을 뿐 이 곡은 키브라더스의 것이 되지 못했다. 데뷔 앨범인 이 음반 이후 키브라더스는 이미 독자적인 밴드라기보다는 윤항기의 백 밴드가 되어버렸다. 두 번째 음반 <키-부러더즈 특선집>과 신세기레 코드 이적 후 발표한 <윤항기와 키브라더스>를 마지막으로, 윤항기는 1974년 솔로 가수로 독립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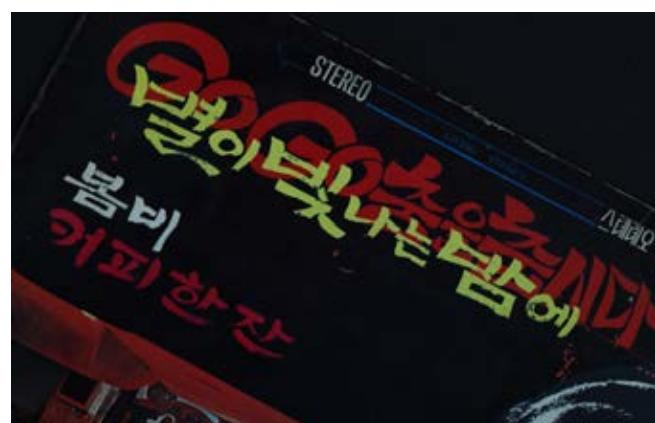
커버 사진의 배경인 오리엔탈 호텔의 ‘닐바나’는 당시 최고의 고고클럽이었는데, 타원형 작은 사진 세컷으로 알 수 있듯이 키브라더스는 음반 발매 이전에 이미 강렬한 연주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스테이지 매너로 최고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

중 두 것은 모두 정장차림에 머리에 넥타이를 두른 모습과 사물(四物)을 들고 연주하는 모습이고 가운데 것은 사회보는 DJ 이종환의 모습이다. 검붉은 톤의 커버 사진은 싸이키 조명 아래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그룹사운드와 플로어를 가득 메우며 춤추거나 술 마시는 청년들로 뜨거웠던 당시 고고클럽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중요한 문화적 기록이다.

초반은 재킷 앞뒤 사진이 똑같다. 타이틀곡은 「봄비」와 「커피한잔」이고 <키보이스특선집>글씨는 오렌지색, 그아래 <락앤키보이스>글씨는 파란색이다. 하늘색 라벨에는 발매일 1971년 3월 21일이 나와 있다. 재반과 3반은 앞면은 초반과 같은데 타이틀곡명 「님은 먼곳에」가 추가되었다. 뒷면은 검은 바탕에 흰색 활자로 ‘윤한기 작편곡집’이라 표시했고 앞면 타원형 사진 세 컷을 푸른 톤으로 바꿔 넣었다. 4반에서야 팀명을 <키-브라더즈>로 넣었다.

그동안 LP 애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컬렉터스 아이템이었던 이 작품이 33년만에 2004년 뮤직리서치에서 CD로 재발매 되었다. ‘키브라더스’란 이름을 담은 4반 재킷을 사용했고, 초반 재킷은 음반 내지에 삽입했다. 산타나를 떠올리게 되는 라틴록의 사운드와 타악기의 리듬이 돌보이는 싸이키델릭 연주로 당시 해외 명반들 못지않게 놀라운 음악을 담고 있는 이 음반은 당시의 한국 밴드의 음악이라고 믿기 어려울정도로 완성도 높은 연주를 기록한 값진 앨범이다. 신중현과 더불어 한국 록의 역사에서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앨범이다.

A면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 「커피 한잔」, 「봄비」 3곡을, B면에는 「고고춤을 춥시다」, 「님은 먼 곳에」 2곡을 담고 있다.



김민기·양희은 – 금관의 예수



희곡 <금관의 예수>(1972년)의 저자는 이동진이다. 암울하던 1970년대 ‘낮은 곳’에 있어야 할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과 금력이 빌붙어 잇속을 차리는 데 열중하는 현실을 풍자한 수작이다.

writer _조대안 희귀음반콜렉터 / photo _조용수 기자



김민기는 원주를 중심으로 민중문화운동을 하던 시인 김지하와 함께 일하면서 지학순주교와 장일순을 만나 가까이 지냈다. 김지하는 당시 대학가의 문화운동파 후배들인 임진택, 채희완, 김민기 등을 자주 원주로 불러 원주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힘을 합쳐 마당극과 탈춤, 연극 창작을 통해 민중문화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연극 <금관의 예수>를 원주 가톨릭회관 무대에 올리기 하고 그가 시를 써 김민기에게 주제곡을 부탁했다. 이렇게 탄생한 노래가 「금관의 예수」이며 나중에 「주여 이제는 여기에」로 제목이 바뀌었다.

김민기 작사 작곡의 「금관의 예수」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널리 불린 저항 음악이며 금지곡이었다. 앨범 「금관의 예수」(1970년 후반추정)는 유신독재에 반대하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 이후 국외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기 위해 일본에서 조직한 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일본본부선전국>에서 제작하고 <재일한국청년동맹>에서 발행했다.



김민기 양희은 LP 앞면

음반의 타이틀은 '金冠의 예수'인데 부제는 地下抵抗の歌<金冠のイエス> 즉, 지하저항의 노래<金冠의 예수>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다. 앨범 재킷 사진은 동트는 새벽에 멀리 지평선에서 오렌지빛 여명이 솟아오르는 장면이다. 비밀리에 발매된 음반에 걸맞게 공식적인 음반레이블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SS-3593이라는 음반고유넘버는 선명한 것을 보아 이 단체에서는 이 음반 말고도 의식적이고 저항적인 음반을 상당수 발매했음을 알 수 있다.

뒷면에는 <抵抗의 노래모음>이라는 한글표기가 뒷면 중앙 맨 위쪽에 나와있다. 왼쪽에는 양희은이 부른 1면의 8곡 목록과 가사가, 오른쪽에는 2면엔 김민기가 노래한 8곡의 목록과 가사가 나와 있어, LP 한 장에 무려 16곡을 담고 있는 진기한 LP라 할 수 있다.



김민기 양희은 LP 뒷면

이 음반에 수록된 양희은의 「금관의 예수」는 1975년 발매된 최초 버전이 아니다. 제목과 가사뿐 아니라 밴드 연주로 진행된 오리지널과 달리 심플한 오르간 연주로 진행된 녹음자체가 다른 음원이다. 12인치 LP 보다 먼저 1976년 10월 25일 일본 토요미술사에서 발간한 김지하 시화집에 7인치 싱글이 속지까지 포함된 부록 개념으로 부착되어 공개되었다. 음반 수집가들 사이에 이 음반의 존재 여부는 상당기간 격론이 오간 적이 있는데, 최근 5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한 온라인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존재를 입증했다.

1면에는 양희은이 부른 김지하작사 김민기작곡의 「금관의 예수」, 김민기 작사작곡의 「작은 연못」, 「바다」, 「서울로 가는 길」, 「아침 이슬」, 한대수 작사·작곡의 「행복의 나라」, 신중현 작사작곡의 「길」, 방의경 작사 김광희 작곡의 「가난한 마음」이, 2면에는 김민기 작사 작곡 노래인 「친구」, 「푸른 하늘」, 「바람과 나」, 「누가 보았을까」, 「꽃」, 「여러갈랫 길」, 「그날」, 「종이여 날리자」 총 16곡이 수록되어 있다.



은희 – 학창시절 & 잊어야 할 사람



흔성듀엣 라나에로스포의 1기 여성 멤버 출신인 은희(본명 김은희)는 화려한 패션이 돋보였던 포크가수였다. 챙이 넓은 멋진 모자를 쓴 은희의 사진이 똑같이 들어있는 음반은 두 가지가 있다. 1973년 지구레코드에서 발매된 초반은 <학창시절>을 타이틀곡으로 표시하고 모든 신곡을 만든 ‘백창민 작곡’이란 문구가 커버에 나와 있다. 같은 사진의 재킷에 <골든디럭스 20> 이란 문구와 <사랑해>와 <꽃반지 끼고>를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은 재반이다. 초반은 은희의 노래 7곡과 라나에로스포 시절 노래 3곡으로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다. 재반에는 은희의 초창기 히트곡들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재반에는 없는 희귀한 5곡이 수록되어 있는 초반은 쉽게 구할 수 없어 훨씬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writer _조대안 음반콜렉터 / photo _조용수 기자

본명이 김은희인 ‘은희’는 1951년 제주도 모슬포에서 태어났다. 제주 남초등학교 시절, 방송국의 어린이 합창단원과 어린이 성우로 활약할 만큼 재능이 있었다. 뛰어난 예능소질로 입학금을 면제받고 제주여중에 진학한 그녀는 학교가 끝나고도 음악실에 홀로 남아 피아노를 연습할 만큼 음악에 빠져 들었다. 제주여고 때는 민속예술단의 일원으로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 제주 해녀의 춤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중에 한국의 대표적인 중견 연기자인 고두심이 있다.

은희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자유분방하고 당돌했다고 한다. 1968년 1월 가족들 몰래 여군에 지원하여 주변을 놀라게 했을 정도다. 서울에서 여군훈련을 거친 후 대구에서 육군 제2군사령부 소속 여군 타자병으로 근무했지만 여군생활에 짙증난 은희는 6개월 후 정기휴가로 나가서 귀대하지 않았고 이후 서울 예고로 전학하였다.

1970년 3월, 서울 예고를 졸업한 은희는 서울에서 무명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새롭게 결성된 이필원과 박인희의 혼성 듀엣 <뚜와에무와>의 인기가 높았다. 은희는 한민과 혼성듀오 <라나에로스포>를 결성하고, 대학가에 흘러 다니던 주인이 분명



은희 LP 앞면



은희 LP 뒷면

치 않던 <사랑해>를 타이틀곡으로 1970년 말에 음반을 발표하였다. 음반이 발표되고 몇 달이 지나자 <사랑해>는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또한 <사랑해>의 애절한 노랫말은 한 대학생이 백혈병으로 죽은 애인을 그리며 지은 곡이라는 애틋한 사연과 이 노래의 목소리가 은희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나중에 한민은 ‘작사 작곡 모두 당시의 중앙대학교 학생인 오경운’이라고 밝혔다.

<사랑해>는 지금도 각종 모임에서 불멸의 연가로 애창되고 있다. 1972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최초의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우리측 이범석 수석대표와 북측 김태희 대표단장이 손을 맞잡고 <사랑해>를 부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라나에로스포>를 청와대로 불러 치하했다고 화제가 됐다.

은희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1세대 포크 여가수는 없었다. 1970년대 초반 발표되는 곡마다 트로트 가수들을 제치고 가요차트의 상위에 랭크되었던 통기타 가수는 은희가 유일했다.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에 애간장을 태울 만큼 달콤하고 상큼했던 그녀의 노래들은 학생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폭넓게 사랑을 받았다. 약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독립 음반을 무려 37개나 냈으며, 5천 장만 팔려도 화제가 됐던 시절에 첫 독립음반 <꽃반지 끼고>는 50만 장이나 판매되었다고 알려진다.



조대안 프로필



- 단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필리핀국제문화대학 명예 철학박사
- 칼빈대학교 명예인문학박사
- 한국고승유묵연구소장
- 중광미술연구소장
- 용인한국근대문학관 건립위원장
- 음반수집 연구가

여행은 낮에만? 결코 잠들 수 없는 밤, 노크투어리즘의 선두 튀르키예

-‘고대 도시 야간 개장’부터 ‘밤바다 다이빙’까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야간 관광(노크투어리즘, noctour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계절 온화한 기후와 다양한 문화 관광 인프라를 갖춘 튀르키예가 대표적인 야간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writer&photo _장진아(GEOCM 매니저)

이스탄불: 박물관 · 콘서트 · 보스포루스 야경 크루즈를 한 번에

튀르키예의 대표 도시 이스탄불은 밤이 되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낸다. ‘나이트 뮤지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갈라타 타워 등 다수의 문화 명소가 야간 개장하며, 여름철에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야외 콘서트와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도 열린다. 올해에는 저스틴 팀



버레이크(Justin Timberlake), 로비 윌리엄스(Robbie Williams)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여름 밤을 특별하게 꾸민다.

보스포루스 해협에서는 토요일마다 정기 일몰 크루즈(City Lines)를 운행하며, 프라이빗 디너 크루즈를 통해 도시의 빛나는 야경을 물 위에서 감상할 수도 있다. 튀르키예 전통 ‘메이하네(술집)’부터 루프톱 바까지, 활기찬 이스탄불의 밤문화 역시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이즈미르 · 물라: 해질녘 다시 한 번 살아나는 에게해

에게해 지역의 밤 역시 낯과는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이즈미르의 에페수스 유적과 문화예술센터는 늦은 밤까지 개방되며, 물라의 보드룸 수중고고학박물관에서는 달빛 아래 특별한 역사와 예술 체험이 가능하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우를라(Urla) 지역과 전통 ‘메이하네(meyhane)’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에게해식 메제를 맛보며, 미슐랭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에서 저녁 만찬을 즐길 수 있다. 이즈미르

카라부룬, 물라 페티예 · 마르마리스에서는 달빛 크루즈와 야간ダイ빙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밤이 깊어지면 보드룸 리조트에서는 클럽과 바, 여름철 축제 등 활기찬 밤문화가 펼쳐진다.



전 새벽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열기구가 떠오르는 장관은 카파도키아의 상징적인 경험으로 꼽힌다.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동굴 호텔에서의 와인 한 잔은 밤을 마무리하기에 완벽하다.

카파도키아: 새벽을 수놓는 열기구 행렬

동화 같은 풍경의 카파도키아는 밤이 되면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은은히 빛나는 계곡과 요정의 굴뚝(페어리 침니)은 별빛 아래 평화로운 저녁 산책을 즐기기에 완벽한 배경을 제공하며, 데린ку유(Derinkuyu), 카이막클리(Kaymakli), 외즈코냑(Zkonak) 지하도시는 밤 9시까지 개방된다. 특히 해가 뜨기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문화관광참사관 수라 카라테페(Büyük Karatepe)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야간 관광을 즐기기에 튀르키예만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은 드물다”며, “문화 · 역사 · 자연 · 미식이 어우러진 튀르키예의 밤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신의 플레이, 당신의 스타일”

브루노 마스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스페셜 캠페인, 솔레어 리조트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럭셔리 솔레어 리조트가 2025년 10월 31일까지, 세계적인 슈퍼스타 브루노 마스(Bruno Mars)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스페셜 캠페인, ‘당신의 플레이, 당신의 스타일(Your Play, Your Way)’을 선보인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그의 히트곡이 지닌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이 솔레어 리조트의 최상급 서비스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될 것이다.

writer & photo _ 솔레어 리조트

솔레어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시티와 솔레어 리조트 노스, 두 곳 모두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세계적인 세프들이 준비한 특별한 요리, 넓고 편안한 객실에서의 휴식,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 게임 등, 고객들의 매 순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줄 다양한 경험이 준비되어 있다.



솔레어 리조트 노스 그랜드 디럭스 룸

24K 매직(24K Magic)의 풍미

2016년 발매된 24K 매직(24K Magic)에서 영감을 받아 24K 골드로 장식된 스페셜 메뉴가 제공된다. 워터사이드(솔레어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시티) 및 카페 맹그로브(솔레어 리조트 노스)에서는 24K 매직 골든 버거를 선보이며, 워터사이드에서는 저스트 더 웨이 유 아 타코(Just the Way You Are Taco)를 맛볼 수 있다. 이 외에도 BRB(솔레어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시티)와 스카이바(솔레어 리조트 노스)에서는 아이리시 커피를 곁들인 화려한 에스프레소 마티니, 24K 매직 골든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솔레어 리조트 24K 매직 골든 칵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호캉스(Do Nothing Staycation)’를 통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객실 패키지를 선보인다. ‘솔레어 리조트 노스’ 패키지에는 프레시에서의 2인 조식 뷔페를 포함해 스파 및 살롱 프로그램 할인 그

리고 매일 4,000페소 상당의 인룸다이닝 크레딧이 제공되며 ‘솔레어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시티’ 캠페인은 가족 여행을 위한 캠페인으로 성인 2명, 어린이 2명을 위한 조식 뷔페를 비롯해 풀 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페소 상당의 식음료 크레딧을 제공한다. 필리핀식 환대, 지금 그 모습 그대로(Just the Way You Are)

9년 연속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로부터 5성급 호텔로 선정된 솔레어에서는 아주 사소한 순간까지도 특별한 순간이 된다. 문 앞에서 맞이하는 “온 세상이 잠시 멈춰서 바라보게 하는 (the whole world stop and stare for a while)” 따뜻한 미소를 시작으로 매 순간 정성껏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까지, 솔레어의 직원들은 필리핀 특유의 따뜻한 환대의 정수를 보여준다.

다이닝 & 드라이브

솔레어 리워드 클럽 회원은 다이닝 & 드라이브 프로모션을 통해 신형 렉서스 UX SUV에 당첨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솔레어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시티 또는 솔레어 리조트 노스 내 모든 레스토랑 및 바에서 500페소 결제 시마다 이벤트 응모권 1매가 주어지며 당첨자는 2025년 11월 5일에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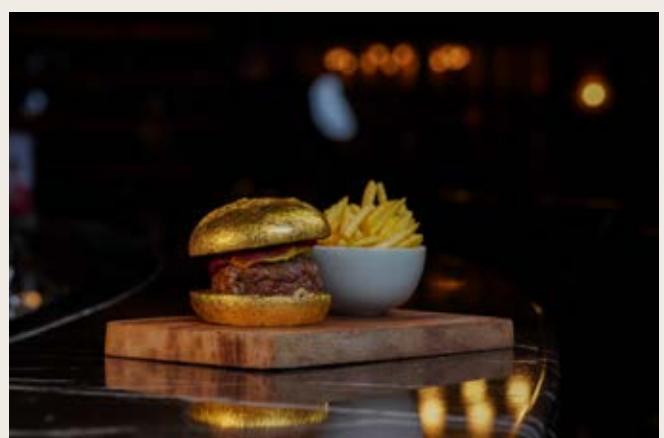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www.solaireresort.com/solaire-way>에서 확인 가능



솔레어 리조트 저스트 더 웨이 유 아 타코



솔레어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시티 시그니처 스위트



솔레어 리조트 24K 매직 골든 버거



여행객을 위한 해안 휴양 특별 패키지 & 다이닝 프로모션 베트남 중부 휴양지 쉐라톤 나트랑 호텔 & 스파

베트남 중부 대표 휴양지 나트랑에 위치한 쉐라톤 나트랑 호텔 & 스파가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숙박과 다이닝을 포함한 이번 패키지는 나트랑 해안에서 여유롭고 풍성한 휴양 경험을 제공하도록 기획됐다.

photo _조용수 기자 / photo _ HNM KOREA 제공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기획된 ‘이지 이스케이프(Easy Escape)’ 패키지는 3박 이상 예약 시 기본 요금 할인이 적용되며, 메리어트 본보이(Marriott Bonvoy) 회원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투숙객은 인피니티풀에서 여유를 즐기거나, 아름다운 오션뷰와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등 다양한 여행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다이닝 부문에서도 다양한 혜택과 메뉴가 마련됐다. 앤모어 바이 쉐라톤(&More by Sherato)에서는 와인 한 병 주문 시 콜드 컷 플래터가 무료로 제공되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기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 피스트(Feast)레스토랑은 신선한 현지 해산물과 글로벌 인기 메뉴를 포함한 시그니처 씨푸드 뷔페 디너를 운영한다. 투숙객들은 풍성한 테이블 세팅과 함께 다양한 씨푸드를 즐기며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다.

스팀앤 스파이스(Steam n' Spic)레스토랑에서는 세프 링(Ming)이 직접 운영하는 정통 광동 요리를 선보인다. 섬세한 딤섬, 수타면, 웍 요리 등 전통 광동 요리를 제공하며, 나트랑에서 현지와

이국적인 맛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앨티튜드(Altitud) 루프탑 바에서는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테마별 DJ 공연과 시그니처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알앤비, 힙합,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며,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DJ가 음악을 선보인다. 도시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과 함께, 저녁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호텔 관계자는 “쉐라톤 나트랑 호텔 & 스파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고객이 나트랑에서 느낄 수 있는 해안 휴양의 모든 요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편안한 숙박과 함께 미식, 휴식, 오락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휴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쉐라톤 나트랑 호텔 & 스파는 나트랑 해안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인피니티풀과 스파,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를 갖추고 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브랜드 쉐라톤 계열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와 환대를 제공하고 있다.



피스트(Feast)레스토랑



피스트(Feast)레스토랑



스팀앤 스파이스(Steam n' Spic)레스토랑



쉐라톤 낙트랑 호텔 _ 스파

“첫 키스처럼, 날카롭고 부드러운 자연의 맛” 타우린 가득한 갯벌의 산삼, 낙지

입안에 부드럽게 밀려와 날카롭게 빨아들이는 낙지의 강인함은 아련한 첫 키스를 떠오르게 한다. 낙지는 계절과 무관하게 어느 때나 맛있지만, 굳이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고 하는 것은 5~6월 사이에 산란을 마치고 포동포동 살이 오르는 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이다. ‘오뉴월 낙지는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넘쳐나는 낙지의 맛과 효능, 아끼다 ‘묵은 낙지’ 만들지 말고 가을동안 마음껏 즐기자.

writer&photo _조용수 기자

낙지가 제철이지만 예년보다 어획량이 줄어들어 값이 뛰었다는 소식이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 갯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낙지가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낙지는 우리 몸에 좋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특히 타우린 함량(854mg/100g)이 높아 시력회복, 당뇨병 예방,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낙지의 효능

타우린은 담즙(쓸개즙)을 통과하면서 지방의 흡수 및 배설을 촉진시켜 낙지에 많은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타우린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좋다. 타우린은 뇌의 교감신경에 대한 억제작용을 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또 심장에 칼슘이 결핍돼 심근의 수축력이 떨어질 때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칼슘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면 수축력을 감소시켜 준다. 그래서 부정맥이나 심부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지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필수아미노산도 많이 들어 있다.



필수아미노산의 종류는 성별,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필수아미노산 중 한가지라도 결핍될 경우 몸안의 단백질 합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몸의 성장이나 유지대사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이다.

주먹보다 강한 낙지의 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가 미국에 개봉했을 당시 일부 유력자는 '초폭력적(ultraviolent)'이라고 비난을 했다. 그들은 이를 뽑거나 혀를 자르는 장면 때문이 아닌, 주인공이 생낙지를 먹는 장면을 그렇게 본 것이다. 이것은 국가별 정서의 차이에서 온 편견이지만, 낙지의 효능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서양권에서는 '저승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상징인 낙지를 생으로 캐찹이나 마요네즈에 찍어 입에 넣으며 '죽여주네'를 연발하지는 않을지.

한의학 속 낙지

<동의보감>에도 그 생김새와 서식 습성이 묘사된 바 있는 낙지에는 자양강장에 뛰어난 타우린 성분이 낙지 반 마리에 해당되



는 100g당, 871mg이 들어있다. 굴 100g당 396mg, 미역은 200mg이 들어있는 것에 비하면 원기를 돋우는 음식으로 단연 으뜸이다. 기를 더해주고 피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없고 숨이 찰 때 효능이 있다. <한방고서>에서 '낙지는 기는 평 범하고 그 맛은 달며, 기혈을 순조롭게 하는 식품'이라고 했으며, 전정약전이 지은<자산어보(茲山魚譜)>에는 비쩍 마른 소에게 낙지 서너 마리를 주면 곧 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전한다.

수험생 울리는 낙지의 맛

낙지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표고버섯과 음식궁합이 맞는데, 낙지 자체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의 양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춰서 '낙지죽은' 환자에게 인기가 많다. 또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갖춘 스타미너 식품인 낙지는 철분도 풍부해 빈혈 예방에 탁월하다. 출산을 한 산모가 미역국에 낙지 한 마리를 넣

어서 먹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뇌기능을 돋는 DHA 성분이 풍부하고,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간장기능을 강화시켜 준다. 하지만 예부터 민간에서는 낙지를 낙제어(諾蹄魚)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금기식으로 꼽히기도 하니, 수험생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낙지 속 타우린(Taurine)의 효능

- 빈혈을 예방한다.
- 부정맥을 개선한다.
- 간장의 해독 작용을 강화한다.
- 혈압을 정상치로 개선해 준다.
- 혈압 속의 콜레스테롤 치수를 감소시킨다.
- 콜레스테롤 계통의 담석을 용해시킨다.

그늘·습기가 만든 천연약품 ‘숲의 고기’ 버섯

고대 이집트에선 버섯은 파라오만이 먹을 수 있었다. 고대 로마에선 전사들에게 괴력을 주는 것으로 믿었으며, 동양에선 소중한 약재로 사용했다. 이것을 따오는 사람에게 그 무게만큼의 금을 주기도 했다. ‘자연이 준 영약’버섯의 화려한 과거의 이력이다. 최근엔 심장병과 암을 예방·치료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writer&photo _조용수

독이 없는 버섯은 크게 식용과 약용으로 분류한다. 한국인이 가 장 즐겨 먹는 표고·송이버섯처럼 두 용도로 쓰이는 버섯도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버섯은 수 분이 90% 이상이다. 열량이 매우 낮고(100g당 30kcal 내외) 고 단백(2 ~ 3%)이면서 비타민·미네랄이 풍부하다. 변비를 막아주는 섬유소인 베타 글루칸,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구아닐산 등이 풍부하다. 건강보조식 품으로 많이 팔리는 각종 약용 버섯의 효과와 복용법·부작용을 알아본다.

표고버섯

동양 요리에서 뺄 수 없는 음식 재료로, 칼슘의 흡수를 돋는 비타민 D의 보고다. 그래서 한창 자라는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권장된다. 일본에선 생것 100g(마른 것은 50g)을 1주일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0%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리타데닌이란 성분 덕분이다. 이 버섯에 든 렌티난(다당류)은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또 감기에도 효과가 좋다. 오한이나 몸에서 열이 날 때 말린 것 8개(15g)에 물 세 컵을 붓고, 반으로 졸 때까지 약한 불에 달여 하루쯤 마시면 효과가 나타난다. 버섯은 갓이 80%쯤 피고 두툼한 것이 좋다. 기둥은 굵고 짧아야 한다. 말린 것은 겉이 황갈색이고 큰 것이 상품이다. 생것을 산 뒤에 햇볕에 잘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더 많아진다. 맛·풍미도 말린 것이 더 낫다.



송이버섯

산중고송(山中古松) 밑에서 자라 향기로운 솔 냄새가 난다. 열량이 적고 비타민 B2(탄수화물·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준다)가 들어 있어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추천된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성질이 있어 동맥경화·심장병·고지혈증·당뇨병·담석증 환자에게 권할 만하다. 편도염이 있으면 숟가락으로 혀를 누르고, 가루 내 말린 것을 양쪽 편도 부위에 골고루 뿌려준 뒤 30분쯤 뒤 물을 마신다. 이를 3 ~ 4회 반복하면 삼킬 때의 아픔이 사라진다. 비타민 D와 베타 글루칸이 풍부하다는 것도 이 버섯의 장점이다. 베타 글루칸은 변비를 막을 뿐더러 장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 대장암 예방에도 유효하다.



상황버섯

상이(桑耳·뽕나무 버섯)라고도 하는 상황버섯은 인체 면역력을 높여 항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버섯 중 하나다. ‘본초강목’엔 ‘여성의 자궁 출혈·생리불순에 도움이 된다’고 기술돼 있다.



자연송이

이 증상으로 고생하는 여성은 볶아서 가루낸 것을 공복에 1회 8g씩 술과 함께 복용하면 좋다. 스트레스. 숙취가 심하면 한방에선 이 버섯 10g에 물 1ℓ를 넣고 달인 물을 흔히 처방한다. 약한 불로 물이 반쯤 줄 때까지 달인 뒤 식후 세차례 복용한다.

목이(木耳)버섯

잡채와 탕수육에 많이 들어가는 목이버섯은 오래된 활엽수나 마른 가지에서 자라며 흰 것과 검은 것이 있다. 흰 것은 오래전부터 불로장생의 강정제로 여겨져 값이 매우 비싸지만 영양 측면, 특히 철분 함량은 검은 것이 10배나 많다. 두툼한 검은 것(말린 것) 9개면 철분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채워진다. 따라서 이 버섯은 철분 부족으로 생기는 빈혈. 새치를 막아준다. 칼슘 함량도 버섯. 채소 가운데는 최고다. 그러나 습과 열이 많아 많이 먹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영지버섯

높은 산 벼랑의 활엽수의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석이(石耳) 버섯은 '진시황의 불로초'로 유명하다. 인삼과 함께 상약(上藥)의 반열에 올라 있다('본초강목'). '동의보감'엔 "오래 살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버섯"으로 소개됐다. 이 버섯은 혈압.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



자연송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침.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용하다. 평소 기관지에 문제가 있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이 버섯을 넣고 끓인 물을 하루 세차례 식사 전에 마시면 효과적이다. 한방에선 피로. 어지럼증. 불면증 환자에게 이 버섯 12g을 물 100mℓ에 달여 하루 두차례 나눠 마시라고 권한다.

운지 버섯

상황. 영지보다 채취하기 쉽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이 버섯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간에 좋아 간염. 만성 간 질환자에게 추천된다. 약으로 복용할 때는 물 1ℓ에갓 20개가량을 함께 넣어 달이는 것이 이상적이다. 단 성질이 차서 몸이 냉한 사람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웰빙과 힐링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는 영지. 운지. 상황. 아가리쿠스. 차가 등 이른바 항암 버섯들이 최근 인기다. 판매업자들은 이 버섯에 든 베타글루칸이 90%가량의 항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다. 베타글루칸이 대식세포(암세포 등 이물질을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나 이는 실험실 결과일 뿐 사람에게서 같은 효과를 낸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한 여름의 정기를 먹고 자란 가을철의 버섯. 우리의 식탁을 더욱 영양가 있는 식재료로 빛내줄 제철음식으로서 손색이 없다.

왕의 만찬 15코스로 고객 사로잡다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참치 브랜드 골드참치

프리미엄 참치 전문점 ‘골드참치’(대표 최연)가 네이버 플레이스 평점 4.94, 4천5백여 건 리뷰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참치 다이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철거 직전의 작은 가게를 인수해 시작한 골드참치는 12년간 연평균 8~14%의 성장률을 이어오며 외식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은 예약 없이는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높은 충성도를 지닌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writer _임유이 기자 / photo _골프참치 제공

골드참치의 출발은 거리에서부터였다. 손님이 없어 매일 전단지를 돌리고, 가게 이름이 적힌 헬륨풍선을 머리에 달고 석촌호수를 달리며 브랜드를 알렸다. “고객은 저 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집념으로 그는 참치에 한식·중식 조리법을 접목하고, 메뉴 구성과 직원 응대, 조명과 동선까지 세심하게 다듬으며 단순한 식당이 아닌 ‘경험 설계형 외식 공간’을 만들었다.

골드참치의 차별성은 ‘참치 3대 원칙’과 ‘왕의 만찬 15코스’에 있다. 모든 참치는 직접 해체와 해동 과정을 거치며, 일반 참치집보다 두툼하게 썰어 풍성한 식감을 살린다. 15코스는 죽, 샐러드, 사시미, 초밥, 아귀간, 메로구이, 마끼, 우동, 아이스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성된다. 이는 ‘가벼움→조화→깊이→따뜻함’으로 이어지는 경험의 흐름을 담아내며, 단순한 요리의 나열이 아닌 ‘기억에 남는 식사’를 완성한다.



온라인에서도 골드참치는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2억 뷔를 돌파한 ‘소맥이모’ 영상은 대중적 화제를 모았고,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참치아저씨’ 채널은 음식과 인문학을 결합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또한 대표가 직접 관리하며, 고객 리뷰에 일일이 답글을 남기는 정성은 곧 브랜드의 신뢰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다.

최연 대표는 “음식은 연주이고, 매장은 무대이며, 고객은 배우입니다. 경영은 감정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HRD 전문가로 23년간 기업 컨설팅과 교육을 해온 그는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외식업에 접목해, 단순히 맛집이 아닌 ‘사람맛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향후 그는 하루 1~2팀만 초대하는 살롱형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다. 직접 요리를 선보이고 차와 후식을 내며, 식사 후 손님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이는 단순한 다이닝을 넘어 음식과 관계가 만나는 무대로 확장된 비전이다.



골드참치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본점(12년)과 가로수길 신사점(4년)을 운영하는 프리미엄 참치전문점이다. 참치 3대 원칙과 왕의 만찬 15코스를 기반으로 한국형 참치 다이닝을 선보이며, 네이버 평점 4.94와 4천5백여 건 이상의 리뷰, 인스타그램 2억 뷔의 소맥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등 고객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외식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참치 아저씨

참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꼭! 구독해야 할 채널!



구독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골드참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참치를 더 맛있게 즐기는 비법



사람과 음식, 외식업의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지금 구독하세요!



참치아저씨



한국의 문화적 감각과 미식을 결합

K-칵테일 4종 연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K-푸드 등 K-콘텐츠의 인기가 확산되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은 '더 바(The Bar)'에서 한국의 문화적 감각과 미식을 결합한 K-칵테일 4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writer_신성식 기자 / photo_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 제공

케데현의 열풍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꼭 경험해봐야 할, 오직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시그니처 칵테일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칵테일은 고소한 향과 전통 미를 살린 '볶은향', 한국의 등산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오름', 편안한 무드를 담은 '팝콘', 동화 속 상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 사과' 등 네 가지다. 각 칵테일은 한국 고유의 재료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한국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전달한다.

* 볶은향

전통 한옥 문짝과 자개 코스터를 통해 K-컬쳐의 헤리티지를 느끼게 하는 칵테일이다. 참깨와 검은깨를 고소하게 볶아내어, 그대로 갈아 칵테일 위에 뿌려 고소한 향이 그대로 살아난다. 프리미엄 막걸리 '느린마을 한번 더'와 '안동 진맥 소주'를 사용해 고소한 볶은 향의 풍미를 살렸다. 막걸리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발효감과 인퓨징 기법을 사용한 볶은 보리차는 구수한 고소함을, 볶은 둥글레 차는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움을 표현해 한층 풍부해진 맛과 향을 표현했다. 전통 한옥 문짝과 자개 코스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스토리텔링 요소로 활용했다. 한국적인 미감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면서도, 최근 케데현 등에서 주목받는 전통 소재의 재해석의 흐름에서 영감을 받았다. 자개 코스터 위에는 단팥이 들어간 떡이 가니쉬로 올라가 남은 깨에 찍어 먹도록 준



비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한국적 정서를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오름

등산에서 영감을 받은 '오름'은 파주 미음넷 증류소의 '소주다움 50 로즈골드'를 베이스로, 이온음료의 상쾌함과 바나나·복숭아의 과일 향, 천일염의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는 칵테일이다. 지친 하루,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 같은 한 잔을 표현했으며, 땀의 상징으로 포카리스웨트와 천일염을, 등산의 동반자인 김밥은 쌀과자와 김으로 표현해 가니시로 사용했다. 한국적인 소주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짜유기 잔에 칵테일을 담아내 기주의 철학과 가치를 함께 담았다. 메인 바텐더인 변경준 바텐더가 지난 6월 27일 코엑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제18회 코리안컵 칵테일 대회'에서 창작 칵테일 부문 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 팝콘

블루치즈 풍미의 크리미한 칵테일과 부드러운 버터 팝콘이 아득하고 편안한 페어링을 선사한다. 팝콘 봉투를 찍으면 칵테일과 팝콘이 들어 있으며, 훈연과 빛으로 열었을 때의 재미를 더한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편안한 감성으로 혼자 즐기기에도 좋고, 커플끼리 이색적인 데이트를 하기에도 좋다.



GMIP_더바 K-칵테일 4종 (볶은향)



GMIP_더바 K-칵테일 4종 (오름)



GMIP_더바 K-칵테일 4종 (팝콘)

* 독사과

동화 백설공주에서 영감을 받은 독사과 칵테일이다. 백설공주의 독사과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한번쯤 들어본 상징적인 이야기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위험하다는 반전의 매력을 칵테일의 맛과 색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투명한 칵테일과, 작은 녹색병(독)이 함께 제공되며, 고객이 직접 '독'을 부어 완성하는 재미가 있다. 시각적으로 강렬하면서도 직접 참여하는 재미가 있으며, 독사과처럼 보이지만 그 맛은 풋사과의 상큼함과 부드러운 달콤함이 어우러진다. 고객들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것을 넘어, 동화 속 장면을 체험하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작되었다.

K-칵테일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의적인 메뉴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색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추석에 가족끼리 갈만한 호텔 레스토랑 10선

약 10일간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장소가 고민이라면 호텔의 미식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황금 연휴를 맞아 호텔가에서는 가족 단위의 고객을 위해 뷔페 메뉴 강화, 콜키지 프리, 별실 무료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writer _임유이 기자 / photo _해당 호텔 홍보실

안다즈 서울 강남

- 추석 브런치 뷔페 9만원대 할인부터 6인이상 룸 무료까지!

강남 압구정역에 위치한 하얏트 체인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이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롱 브런치 뷔페를 제안한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10월 10일 제외), 1인 12만원의 가격에서 네이버 사전 예약 20% 할인을 적용해 호텔 뷔페를 9만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날 수 있다. 웰컴 드링크부터 조각보 키친의 한식과 미트 앤 코 스테이크 하우스의 양식을 뷔페 테이블, 카빙 스테이션에서 제공해 인기가 높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강화된 키즈 섹션도 운영된다. 또한 조각보 레스토랑 4인 이상 방문 시 와인 콜키지 1병 무료(금·토 제외), 6인 이상 방문 시에는 최소 이용 금액 없이 룸 추가금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유선 예약 고객



전용 “레스토랑 프라이빗 패키지” 10인 이상 세트 메뉴 혹은 롱 브런치 이용 시, 안다즈 레스토랑 금액권(런치 10만원, 디너 20만원)을 증정하는 시크릿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노보텔 앤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 뜻깊은 ‘ART & HEART(아트 앤 하트)’ 프로모션

노보텔 앤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ART & HEART(아트 앤 하트)’를 선보인다.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아르떼’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호텔 20층 로비와 푸드 익스체인지에서는 예술단 소속 작가 8인이 참여한 ‘Art : 나눔 전시회’가 열려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더불어 푸드 익스체인지 레스토랑에서는 ‘HEART : 나눔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를 예약한 고객에게 풍성한 요리와 함께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방문 고객에게는 브릿지온 아르떼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스페셜 굿즈(여행용 파우치)가 증정된다. 이용 금액의 5%는 브릿지온 아르떼에 기부



된다. 호텔이 직접 준비한 ‘나눔 테이블’도 마련된다. 브릿지온 아르떼 예술단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레스토랑의 런치 프로모션 ‘아시안 테이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이어갈 예정이다.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 미식 향연 '미트-테리안(MEAT-erian)' 뷔페 선보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의 올 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라팔레트 파리'는 자녀 동반 가족 모임 및 명절 나들이를 위한 다이닝 프로모션, <미트-테리안(MEAT-erian)> 뷔페를 2025년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 데일리 수프와 치즈 비스킷 랍스터를 테이블 서비스로 만나볼 수 있으며, 아페리티프(Apéritif) 문화가 접목된 카나페 섹션을 마련했다. 셰프가 즉석에서 참숯으로 구워낸 채끝 등심, 안심, 살치살, LA 갈비, 양갈비 등 프리미엄 그릴 섹션을 비롯해 드라이아이스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최상의 신선함을 맛볼 수 있는 제철 생선회와 편백나무 해산물찜 등 육해공 산해진미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초콜릿 풍듀 스테이션이 새롭게 마련



되며,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 및 생맥주 무제한 혜택까지 제공된다. 단, 테이블 서비스와 초콜릿 풍듀 및 무제한 주류 혜택은 주중 디너,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에 제공된다.

롯데호텔 서울

- 3대 가족 혜택부터 콜키지 프리까지! 추석 패밀리 워크

롯데호텔 서울이 추석을 맞아 3대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추석 패밀리 워크' 식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한식당 '무궁화', 중식당 '도림'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3대 가족이 함께 방문해 식사할 경우, 부모님 30% 할인을 제공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은 필수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인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도림에서는 중국식 월병을, 무궁화에서는 토란국과 송편을 특별 메뉴로 제공한다. 와인 콜키지 프리 프로모션도 진행되어 1인 1병 기준, 테이블당 최대 3병까지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프로모션은 10월 12일까지 이어지며, 도림은 10월 8일 하루 동안 프로모션이 제외된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 남산 산책 후 브런치... '위켄드 브런치' 제안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외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위켄드 브런치'를 주목할 만하다. 자연 채광이 가득한 통유리창과 모던한 분위기를 갖춘 그라운드 다이닝 라운지에서 즐기는 위켄드 브런치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쉐어링 스타일의 애피타이저, 깊은 풍미의 메인 디쉬, 달콤한 디저트 플레이트와 커피까지 3코스로 구성된다. 남산 산책 후 들러 가족이 함께 품격 있는 미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위켄드 브런치는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에 한해 운영되



며, 이용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다. 가격은 1인 11만 5천 원.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 한가위의 풍성함을 담은 미식 프로모션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은 세 가지 다이닝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올데이 다이닝 피스트에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불고기와 잡채, 떡갈비와 한과까지 더해져 정갈한 명절 요리를 완성했다. 중식 파인 다이닝 유에에서는 한정 프로모션 '자연 송이의 계절'이 진행되어, 격조 높은 코스 요리부터 단품 요리가 준비된다. 스테이크 & 바 베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3인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세트'를 마련했다. 애플 고르곤졸라와 마카다미아 피자, 파스타와 토마호크 또는 티-본 스테이크 등 5코스 구성의 시그니처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레스토랑 후기 이벤트를 통해 추석 연휴의 즐거움을



더한다. 참여 고객에게는 '피스트 주중 뷔페 2인 식사권', '오뜨 파티세리 치즈 케이크 교환권', '호텔 시그니처 와인' 추첨, 호텔 마스코트 '쉐리 키링'이 증정된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 중식당 '금룡'에서 가족과 함께 최대 33% 할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의 중식당 '금룡'이 '3·6·9 Festa'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용 인원수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진다. 2인 이용 시 총금액의 30%가 할인되며, 3~5인 방문 시 1인이 무료, 6~8인 방문 시 2인 무료, 9인 이상 단체는 3인까지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2인 소규모 모임부터 대가족 모임까지 두루 어울려, 풍성한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더욱 좋다. 이번 프로모션은 전채요리를 시작으로 동충하초 게살 해오츠 수프, XO 해삼전복, 궁보왕새



우, 메로 생선찜, 만다린 양갈비 등 특별 코스로 제공된다. 식사와 후식까지 제공되며, 코스 가격은 1인 15만 원이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 남녀노소 즐기는 '사천 테이블' 뷔페 메뉴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타볼로 24는 10월 23일까지 정통 사천 요리의 깊은 풍미를 경험할 수 있는 '사천 테이블' 뷔페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대표 메뉴인 카오위는 겉은 불향이 감돌고 속살은 부드럽게 익어진 양념이 스며든 매운 생선 요리로, 사천 특유의 얼얼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회과육은 깊게 발효된 두반장과 불향이 어우러져 짭조름하면 서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다. 특히, 세프가 즉석에서 카빙해 선보이는 로스트 덱도 만날 수 있다. 또한, 별도 주문으로 즐길 수 있는 스페셜 주류 메뉴도 마련되어 있으며, '공부가주 작약', '해지람' 등 중국 명주



와 백주 하이볼이 사천 요리와 완벽한 페어링을 선사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평일 점심 12만 5천 원, 저녁 14만 5천 원, 주말 및 공휴일 점심과 저녁은 16만 원으로 운영된다.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 미식 쉐어링 메뉴 출시

지난 7월에 오픈한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Pullman Ambassador Seoul Eastpole)의 대표 레스토랑 ‘오픈 파이어 그릴 ‘엠버스’는 쉐어링 메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3인 및 5인 구성으로, 가족끼리 즐기기 좋다. 엠버스가 자체적으로 구현해 낸 웰컴 드링크인 렘버스 로제 와 하우스 브레드를 시작으로, 구운 과일과 훈연한 오일을 곁들인 부라타 치즈와 프로슈토, 숯 향을 입힌 생선과 캐비어, 오늘의 에피타이저 등이 차례로 제공된다. 이후에는 신선한 재료로 매일 변경되는 오늘의 파스타, 프랑스식 해산물 스튜인 부야베스가 이어지며, 메인 요리로는 엠버스의 대표 메뉴인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와



참숯에 구운 한우 안심이 제공된다. 디저트 2종과 아이스크림 커피 또는 차로 식사가 마무리되며, 선택 가능한 나이프 서비스까지 더해져 다이닝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린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 특별 메뉴부터 메리어트 본보이 보너스 포인트까지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의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모모카페는 프로모션 두 가지를 선보인다.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테이스트 오브 베트남 프로모션에서는 분짜 와 짜조, 소고기 룰락 등 다양한 현지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또 한 특히 10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명절 분위기를 더해줄 다양한 전, 건강한 나물, 달콤한 한과와 시원한 식혜 등 추석 특선 메뉴를 제공한다. 특히, 10월 6일 (월) 추석 당일에는 정성 가득한 송편도 함께 제공한다. 이어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4인 이상 모모카페 뷔페 이용 시 테이블당 메리어트 본보이 3,000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단 보너스 포인트는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시에만 혜택이 적용된



다. 뷔페 가격(성인 1인 기준)은 평일 런치 7만 5천원, 평일 디너 및 주말 런치와 디너는 10만 5천원이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ditorial Staff

50·60세대 이모작 인생의 새 빛 에너지 메신저 YOLD No.3

Publisher : 조용수

Prison Editor : 조문래

Editor : 마종수

Editor Suite :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405호

Studio :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59 2F

E-mail : ssmenews@naver.com

Editorial Dept.

Director : 유성욱

Director : 임유이

Director : 안정미

Photo Dept.

Director : 김상근

Director : 강경석

Director : 조용수

Director : 김철호

Online Dept.

Director : 박노석(Soa Network)

Design Dept.

Director : 박상영(정음서원)

Marketing Dept.

Director : 이기춘

Director : 신성식

Director : 김영갈

Director : 조병경

Branches Dept.

부산 : 이승렬

대전 : 김미리

전남 : 박현일

제주 : 변전호

강원 : 김영주

W Media

CEO : 조용수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26

편집·광고 문의 : philos56@naver.com / 010.5503.5464

발행일 : 2025년 10월 발행

등록일 : 2014년 07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

등록번호 : 경기, 라 50370

Editors / 편집위원

강경석 (사진작가)

권득문 (윤 캔버스 대표)

권영찬 (방송인)

김교찬 (이디건설 대표)

김기정 (빈크디자인 대표)

김명희 (방송인)

김미화 (방송인)

김연수 (방송인)

김영식 (남부대학교 교수)

김옥경 (글로벌 가디언 대표)

김용선 (방송인)

김은우 (방송인)

김재철 (치과의사)

김중식 (화가)

김진아 (모델강사)

김태민 (국악신문·방송 대표)

김홍덕 (이·바·여 여행테라피스트)

나영아 (화가)

문정이 (E3 Group 심리학 박사)

박미향 (극단 향 대표)

박영애 (유리아나컬렉션 대표)

박창선 (베노빅센 커피 대표)

박충곤 (고양시 사진작가협회장)

배건식 (셀스타 대표)

신은정 (S모델 대표)

심재석 (케이블 TV 방송연합)

양만승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 사무총장)

오수정 (WW 여행사 대표)

오준택 (JSPCM 대표)

유영보 (슈발리에 아카데미 원장)

육혜숙 (한국치매예방교육협회장)

이건혁 (가평 천섬리조트 대표)

이민형 (감홍로 대표 우리술세계화연구회장)

이수연 (한국식문화디자인협회장)

이지연 (공연기획 BTL 대표)

이창호 (파크골프가이드 편집국장)

이탁고 (에어 피앤씨 대표)

임동구 (코아셀틱 소장)

임명재 (사업가)

임미숙 (방송인)

전현태 (방송인)

정서임 (방송인)

조광석 (트롯 가수: 유일한 / 크리에이터: 뒷밭주인)

조미경 (CMK Image Korea 대표)

조병석 (가수. 여행스케치 리더)

차해리 (요리연구가)

최장용 (사업가)

하은진 (성우)

홍순언 (Egg Pr 대표)